

KALPAK
www.kalpak.co.kr

한진관광

서울 중구 서소문로 117 대한항공 빌딩 6층 KALPAK
6th Floor, Korean Air Bldg., 117 Seosomun-ro, Jung-gu, Seoul, Korea 04515

TEL 02-726-5800 FAX 02-771-9084

KALPAK CLASS

2019. AUTUMN. vol 61

KALPAK

CLASS

SEE THE UNSEEN
2019 AUTUMN

—
SPECIAL THEME
PHUKET TO CHIANGMAI
OUT OF THAILAND
—

EXPERIENCE
BELMOND
ANDEAN EXPLORER
—

WORLD EXCLUSIVE
EXTRAORDINARY
MUSEUMS

THAILAND / Travel with a theme





2019 글로벌고객만족역량 조사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부문 1위 대한항공

DELHI

전설과 신비의 땅, 인도에 귀 기울이다

대한항공 델리 노선 매일 운항
델리에서 당신만의 인도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KOREAN AIR
www.koreanair.com



쇼핑, 하늘 위에서 특별해지다 대한항공 기내 면세쇼핑

하늘 위 기내에서 여유롭고 편안하게 누리는
품격 높은 브랜드 쇼핑 - 대한항공 기내 면세쇼핑
엄선된 인기 럭셔리 브랜드와 시즌 별 다양한 구성으로
면세 쇼핑의 즐거움이 더 특별해집니다

Heart to Heart 서비스

해외 여행을 하시는 분이 계실 때, 당신이 마련한 선물과 함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기내에서 전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cyberskyshop.koreanair.com에서 확인하세요)



기내 면세품 사전 주문 : 080-656-4545 / cyberskyshop.koreanair.com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2019 글로벌고객만족역량 조사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부문 1위 대한항공

DELHI

전설과 신비의 땅, 인도에 귀 기울이다

대한항공 델리 노선 매일 운항
델리에서 당신만의 인도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www.koreanair.com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타지마할
Taj Mahal

CONTENTS



PROLOGUE

06

EDITOR'S LETTER

천국보다 낫선 일상



07

PHOTO ESSAY

마드리드의 오래된 시계 상점

TRAVEL & CHALLENGE

08

FESTIVAL AND CITY

죽은 자의 날과
멕시코시티



12

EXPERIENCE

꿈의 열차
'벨몬드 안데스 익스플로러'



20

SPECIAL
OUT OF THAILAND

푸켓의 섬부터 방콕의 야경, 치앙마이의 밀림까지, 태국 3부작

76

WORLD EXCLUSIVE

세계의 독특한
박물관 시리즈



2019 글로벌고객만족역량 조사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부문 1위 대한항공



AMSTERDAM

동화 속 풍경이 일상인 나라, 네덜란드에 반하다

대한항공 인천 - 암스테르담 주 6회 운항

유럽 여행의 중심, 암스테르담으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KOREAN AIR SKYTEAM

www.koreanair.com

50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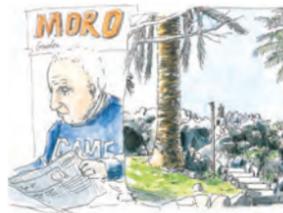


LIFE & CULTURE

64

INTERVIEW

국립발레단 강수진 단장,
그녀의 춤, 여행, 인생 이야기



72

STYLE

기록, 기억을 위한 여행자의 도구들

68

CULINARY TOUR

에티오피아부터 브라질까지 커피 세계일주



EPILOGUE & KALPAK COLLECTION

80

ZOOM

프랑스와 향기



82

KALPAK COLLECTION

2019 KALPAK 가을 상품 안내

KALPAK, SEE THE UNSEEN

Autumn 2019 Vol.61 / Quarterly Magazine

KALPAK CLASS was registered as a quarterly magazine with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on July 11, 2005.

Registration No. Seoul Jung, Ba 00198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contents of this magazine may be reproduced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HanJin Travel Service Co.,Ltd. & HanaroAdcom.

Opinions in this magazine belong to the writers and not necessarily endorsed by HanJin Travel Service Co., Ltd. & HanaroAdcom.

KALPAK CLASS is published quarterly by HanJin Travel Service Co., Ltd.
6th Floor, Korean Air Bldg., 117 Seosomun-ro, Jung-gu, Seoul, KOREA 04515
Tel. +82.2.726.5800 Fax. +82.2.771.9084 www.kalpak.co.kr

Publisher Park In-chai

Editorial Board Ahn Kyo-wook, Jung In-sook, Kim Jung-ho, Jung Yeo-jin

Editorial, Creative & Printing Division / HanaroAdcom

5th Floor, Sando Bldg., 8, Dosan-daero 33-gil, Gangnam-gu, Seoul, Korea 06026
Tel. +82.2.3443.8005 Fax. +82.2.3443.0021 www.hanaroad.com

Managing Director Seol Myoung-sung

Editor in Chief Lim Ji-young

Editor Lee Hyun-hwa, Kim Hong-joo, Han Yu-ri

Art Director Lee Yun-jung

Photographer Lee Yong-ki



2019 글로벌고객만족역량 조사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부문 1위 대한항공



BOSTON

가장 미국다운 미국, 보스턴을 만나다

대한항공 미국 보스턴 주 5회 운항

델타항공과 함께 미주 290여개 도시로 당신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KOREAN AIR SKYTEAM

www.koreanair.com

50 years



EDITOR'S LETTER



천국보다 낫선 일상

STRANGER THAN PARADISE

시간의 흐름을 달력과 시계로 측정하던,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탁상시계부터 손목시계까지 참 많은 시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만 있는 장치들은 이제 어디에나 존재하는 각종 화면들에 밀려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들로 무장한 첨단 기기들이 분명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삶을 약속하긴 하지만, 과연 삶의 질을 편리와 효율로만 잴 수 있는 것일까요? '너비'의 삶을 향해 진격해오는 동안 정작 삶의 '깊이'는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어쩐지 벽 한쪽에 걸려 있던 달력과 시계가 그리워집니다. 사색의 계절이라 불리는 가을의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호를 위해 열흘간 태국 대장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실크에 그림을 그리고, 정원에서 직접 채취한 레몬그라스를 우려 차를 끓이고, 어미 잃은 아기 코끼리를 쓰다듬으며 마주한 태국은 그동안 알고 있던 휴양지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태국에는 아직 다양한 보폭의 시간과 그 보폭에 발맞춰 나란히 걷는 공간이 사이 좋게 공존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번 호에서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저변의 아득한 기억들과 조우하실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에서 느끼는 낯선 설렘이 동력이 부족한 삶에 새로운 동기와 영감을 불어넣어 주길 바랍니다.

노인과 시간

에디터 임지영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는 참 볼거리 많은 도시다. 유럽의 가장 아름다운 바로크식 왕궁 중 하나인 마드리드 왕궁부터 세계 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프라도 미술관, 마요광장, 스페인 광장, 솔 광장은 여행자라면 꼭 한 번은 들르는 랜드마크다. 레알 마드리드의 홈 구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입구에는 언제나 장사진이 늘어서 있고, 쇼핑의 거리인 그란비아는 전세계에서 모인 쇼퍼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기억은 각자의 것이기에, 산 미구엘 시장과 오래된 벼룩 시장인 엘 라스트로 시장의 맛있는 타파스로 마드리드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게 마드리드는 도시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 오래된 한 상점으로 기억된다. 1880년부터 마요 광장으로 향하는 가장 붐비는 길목 칼레 데 라 살 (Calle de la Sal)을 지켜온 '안티구아 레요헤리아' 시계점말이다. 이 시계점에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명물이 있다. 2층 발코니에 기대어 서서 안경 너머로 관광객들을 관찰하는 목각 노인이 그 주인공이다. 그의 손에 시계가 들려있는 까닭에 관광객들은 시간을 보게 된다. 그러다 문득 깨닫는다. 그 즐거운 순간의 유한함을. 그 걸 깨닫고 나면 노인이 우리에게 발길을 재촉하는 것처럼도 생각된다. 아까운 인생, 일본 일초도 허투루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즐기다 가라고 말이다.



THE DAY OF THE DEAD IN MEXICO CITY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산 자와 망자의 흥겨운 축제

죽음은 얼핏 삶의 대치점에 있다고 생각되는 요소지만, 실은 부분과 부분이 만나 전체를 구성하는 삶의 조각 같은 것이다. 삶과 죽음의 화합을 위해, 멕시코시티에서는 산 자가 죽은 자를 소환해 한 바탕 축제가 벌어진다. 태양의 도시라 불리는 멕시코시티의 가을이 더욱 뜨거워지는 이유다.

글 임지영

'죽은 자의 날' 축제의 주 무대인 대성당의 소칼코(Zocalo) 장식



영원할 것 같던 삶은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 과연 그럴까? 멕시코인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죽은 자들은 신의 허락 하에 1년에 한 번 이승에 있는 친구와 가족들을 방문할 수 있다. 이 믿음에 따라 매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멕시코 사람들은 망자에게 음식과 꽃을 제물로 바친다. 멕시코의 국경일로 지정되기도 한 일명 '죽은 자의 날(Día de los Muertos)'이다.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날, 그날을 위해 사람들은 축제를 열고 즐긴다. 멕시코 3대 축제 중 으뜸으로 꼽히는 이 날, 멕시코시티 사람들은 묘지에 방문해 죽은 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영혼이 내려와 먹을 수 있도록 소금과 물이나 죽은 자들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차려 놓는다. 우리네 제사상을 연상시키는 풍경이다. 죽은 자의 날이 이어지는 동안 멕시코시티의 각 가정, 거리, 묘지 등 지역 전체가 꽃과 양초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되며 음악이 울려 퍼지고 은은한 향내가 가득해진다. 촛불과 향을 피워놓고 꽃으로 무덤을 꾸미지만 엄숙한 분위기는 전혀 없다. 말 그대로 모두가 흥겹게 어울려 노는 '축제'다. 죽음의 꽃이라는 금잔화와 설탕으로 만든 해골 형상이 제단을 장식하고, 독특한 코스튬을 하고 자전거를 탄 이들이 밤거리를 행진한다. 행렬을 따라 거리를 걷다 보면 멕시코의 삽화가 호세 과달루페 포사다(José Guadalupe Posada)의 유명한 미술작품, 우아한 모자를 쓴 해골 <라 칼라베라 카트리나(La Calavera Catrina)>처럼 차려 입은 이들도 만날 수 있다.



1. 중남미의 파리(Paris)로 불리는 멕시코 시티
2. 도심에서 벌어지는 축제 퍼레이드
3. <007 스펙터>에서 해골 분장을 하고 축제를 만끽하는 커플
4. 애니메이션 <코코>의 배경이 된 '죽은 자의 날'



어디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독특한 축제의 성격과 무드 때문일까. '죽은 자의 날'은 앞서 언급한 호세 과달루페 포사다나 프리다 칼로 같은 걸출한 화가들의 작품 외에도, 다양한 영화와 애니메이션에 영감을 제공했다. 007시리즈 <스펙터>의 오프닝 씬에 등장해 시작부터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가 하면,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코코>에 그려진 '죽은 자의 날'은 죽은 자를 위한 꽃잎 길이 열리고 등불이 휘황한 아름다운 날이다. 죽은 자들의 날 행사 준비는 2~3개월 전부터 시작되는데, 제단을 꾸미고 무덤을 장식하는 것은 물론, 가장 행렬, 시 낭송, 콘서트, 연극 공연, 음식이나 공예품 판매 등으로 3일간의 행사가 다채롭게 구성된다. 10월 31일 자정에 울리는 교회의 종은 죽은 아이들의 영혼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신호다. 아이들을 위한 제단은 화려한 장난감들로 꾸며지고, 아이들의 영혼이 11월 1일 정오까지 머물다 돌아가면 죽은 어른들의 영혼이 찾아와 11월 2일 밤까지 머문다고 믿는다. 멕시코판 할로윈데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귀신을 쫓기 위한 할로윈과는 엄연히 그 의미가 다르다. 죽은 자들의 날은 2003년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지정되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상을 알지 못한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이전에 우리가 알던 세계와 비슷하다면 죽음은 더 이상 미지와 무지가 지배하는 두려운 대상이 아닐 것이다. 잊히길 거부하는 산 자의 소망이 죽음을 뛰어넘어 형상화된 축제, 그것이 피에스타의 걸작 '죽은 자의 날'이다.

MUST-SEE IN MEXICO CITY



차플테펙(Chapultepec) 성

19세기 합스부르크가 막시밀리아노 1세의 황궁이자 대통령궁으로 쓰였던 성. 삼나무, 소나무 등 고목들이 울창한 숲과 아즈텍 황제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호수도 근사하지만 발코니에서 감상하는 멕시코시티 파노라마는 숨막히게 아름답다.



소치밀코(Xochimilco) 마을

소치밀코(Xochimilco)는 옛 멕시코를 만날 수 있는 흥미롭고 유쾌한 여행지다. 옛 성당을 감상하고, 알록달록 칠해진 거리와 집, 벽들을 만나보자. 각종 과일과 꽃, 수공예품을 파는 시장도 둘러보는 재미가 있다.



코요아칸(Coyoacán) 지구

멕시코시티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예술가 지구. 음악과 카페, 서점, 공방이 어우러진 골목들이 독특한 색채를 자아낸다. 바로크 예술의 보석으로 여겨지는 콘치타(Conchita) 예배당도 놓치지 말 것!

BELMOND ANDEAN EXPLORER

안데스 산맥을 달리는 특급 야간열차

편안한 침대에 누워 이불에 꼭 파묻힌 채로 안데스 산맥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면? 꿈에서나 그럴 수 있는 풍경일까? 안데스의 눈부신 보석들을 만나는 여정, 안데스 익스플로러는 꿈을 실현해주는 특급 열차다.

에디터 한유리

열차여행에 관한 여행자의 꿈을 총망라한 패키지

페루의 전통문화가 투영된 아름다운 디자인의 열차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노선을 달린다. 5성급 호텔 수준의 객실과 서비스로 인해 '달리는 호텔'이라 불리는 벨몬드 안데스 익스플로러(Belmond Andean Explorer)다. 남미 최초의, 그리고 남미에서 가장 럭셔리한 안데스 익스플로러는 아주 독특하면서 편안한 방식으로 페루의 명소들을 둘러볼 수 있게 설계된 야간 침대 열차다. 2017년 첫 선을 보인 벨몬드 안데스 익스플로러는 쿠스코를 시작으로 아레키파까지 해발 4,800m에 이르는 페루의 안데스 산맥을 따라 운행된다. 열차 내 시설은 여행에 대한 모든 꿈을 총망라한 패키지나 다름없다. 한번에 최대 48명의 승객만 탑승할 수 있는 벨몬드 안데스 익스플로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라운지와 도서실이 마련된 칸은 물론, 정차하는 역에

서 파는 수공예품을 살 수 있는 부티크칸, 시시각각 달라지는 안데스 산맥의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칸이 있다. 페루의 전통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럽게 제작된 실내에서는 남미 특유의 여유로우면서도 컬러풀한 생동감이 느껴진다. 열차의 디자인은 빈티지한 감성에 세련미를 더해 아늑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긴다. 객실에는 욕실이 완비되어 고객의 편의까지 더했다. 페루의 다채로운 식재료를 활용한 시즌 메뉴는 물론 주류까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식당칸도 두 칸이나 있다. 식당칸에서는 치즈에 흠뻑 적신 옥수수부터 알파카 고기로 만든 알파카 토르텔리까지 다양한 정통 페루 메뉴를 즐길 수 있다. 야외 풍경을 수시로 감상할 수 있는 화려한 내부의 조망 공간은 물론 아르누보풍의 최고급 스파 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 모험치곤 꽤나 호사스러운 여정이 되겠다.





잃어버린 도시와 세계 최고(最高)의 호수로 향하는 페루비안 하이랜드

안데스 익스플로러는 현재 총 4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승객, 혹은 투숙객은 잉카의 잃어버린 도시로 가는 출입구인 쿠스코(Cusco)와 하얀 도시라는 별명을 가진 아레키파(Arequipa) 등의 도시로 향하는 1박 혹은 2박의 여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쿠스코에서 티티카카 호수를 지나 아레키파로 향하는 '페루비안 하이랜드'와 그 반대 방향으로 도는 '안데스 플레인스 & 아일랜드 오브 디스커버리', 쿠스코와 푸노를 연결하는 '스피릿 오브 더 워터'와 '스피릿 오브 더 안데스' 중 어느 노선을 선택해도 후회는 없다. 여행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노선은 2박 3일간 페루의 자연 절경과 이색적인 문화를 두루 만끽할 수 있는 '페루비안 하이랜드'다. 열차가 여정의 클라이맥스인 해발 4800미터 고도에 도달하면 기차의 유리창을 통해 반짝이는 호수, 눈 덮인 봉우리, 알파카와



라마 무리를 볼 수 있다.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깊이가 4,000미터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계곡 중 하나인 콜카 협곡(Colca Canyon)과 수천 년 전에 새겨진 약 500여 점의 벽화가 있는 섬베이 동굴(Sumbay Caves), 그림처럼 아름다운 항구 도시 푸노(Puno), 그리고 라 라야 산맥(La Raya Mountain Range) 같은 장관들도 줄줄이 만나게 된다. 안데스 산맥의 봉우리부터 눈부신 설경, 고대 잉카와 콜로니얼 시대의 역사가 가득한 도시들이 거대한 하나의 서사로 펼쳐진다. 안데스 익스플로러만의 초호화 경험에는 티티카카 호수를 조망할 수 있는 호수 위의 떠있는 섬을 투어하거나 이웃 나라 볼리비아(Bolivia)의 빙하가 박힌 라파스(La Paz) 봉우리를 감상할 수 있는 해변에서의 점심식사 등 일반적으로 체험하기 힘든 경험들도 포함되어 있다. 열차는 승객을 실어 나르면서 저마다의 꿈도 함께 실어 나른다.



ANDEAN EXPLORER PROFILE

● 운행 스케줄

페루비안 하이랜드 노선
(Peruvian Highlands)
- 매주 목요일

안데스 플레인스 & 아일랜드 오브 디스커버리 노선
(Andean Plains & Islands of Discovery)
- 매주 토요일

스피릿 오브 더 워터 노선
(Spirit of the Water)
- 매주 화요일

스피릿 오브 더 안데스 노선
(Spirit of the Andes)
- 매주 수요일

● 정차역

Wanchaq Station (쿠스코)
Lago Titicaca Station (푸노)
Arequipa Station (아레키파)

● 하이라이트

티티카카 호수 해발고도 3,810m, 최대수심 281m에 이르는 알티플라노 고원 북쪽에 있는 남미 최대의 담수호.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호수로 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발상지의 하나로 추정된다. 호반에서는 원주민인 인디오가 농업에 종사하며 호수의 남쪽에서는 어업과 수상생활이 이루어진다.



FINDER'S REWARD

The New GLE에는 세 단어로 전 세계의 숨은 비경을 찾을 수 있는 비장의 앱이 탑재되어 있다. GPS를 능가하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잘츠부르크 외딴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

글 이나 부르조스카(Ina Brzoska) / 사진 우베 뉘트만(Uwe Düttmann)



단 세 단어로 세상의 모든 비경을 찾다

갈대 숲을 지나 아침 바람이 몬제 호수의 안개를 부드럽게 걷어내자 우뚝 선 절벽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낸다. 신비로운 풍경을 간직한 이 호수처럼 가고 싶어도 정확한 주소가 없어 찾아가기 어려운 곳이 종종 있다. 스마트폰을 꺼내 왓스리워드(what3words) 사진 앱으로 주변을 촬영하자 화면 속 사진이 세 단어로 태그되고, 태그된 단어로 금세 위치 추적이 완료된다. 왓스리워드(what3words)는 세 단어만 이용하면 어느 곳이든 찾아내는 단순한 체계로, 혁신적이라 평가받는 지오코딩(Geocoding) 방식을 채택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자동차 브랜드 중 이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한 회사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처음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거의 모든 신차에 왓스리워드와 협업한 시스템을 탑재해 운전자가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GPS를 가뿐히 뛰어넘는 장점

잘츠부르크 인근의 아름다운 산을 돌아보는 여행이 끝나갈 무렵, 운전자는 세 단어 주소가 입력된 여덟 곳의 사진을 저장했다. 오늘 같은 경로로 다시 여행을 오기 위해서다. "세 단어는 기억하기 아주 쉽죠. 위도와 경도 좌표로 된 긴 주소 목록보다 알려주기도 편하고요." 이런 장점은 위급한 상황에 더욱 빛을 발한다. 민간단체가 홍수 피해 지역을 찾아 구조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그렇다. 심지어 유엔도 재난구조활동 업무 절차 서류에 왓스리워드 앱을 포함시켰을 정도다. 운전자가 오늘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우연히 발견한 멋진 통나무 집의 주소를 앱에 남겨둔 것처럼 말이다. "비밀 장소는 흔히 알려진 길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이런 곳을 발견하고 싶어하죠. 왓스리워드 덕분에 발견의 기쁨과 공유의 기쁨 모두를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파트너십

메르세데스-벤츠는 왓스리워드(what3words)가 개발한 새로운 길 찾기 시스템에 투자한 첫번째 자동차 브랜드로 향후 출시할 모든 신차에 이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운전자는 음성 호출 또는 스크린에 세 단어로 된 주소만 입력하면 어디든 찾아갈 수 있다. mbmag.me/what3words

The New GLE: Strong & Intelligence

The New GLE는 어떤 상황에서도 조용하고 안정적인 주행을 자랑하는 새로운 지능형 커넥티드 카다. 안락한 승차감과 안정적 주행을 제공하는 E-액티브 바디컨트롤 덕분에 온·오프로드 주행 모두에 최적화되어 여행 동반자로서는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 본 기사에 소개된 차량의 이미지와 사양은 국내 미출시 모델로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름다워지길

가슴에 품은 모든 꿈이 꼭 이루어지길

꿈꾸던 크로아티아로 향하는 지름길

Muse

뮤즈, 함께 한 모든 순간이 너였어

MUSE PICKS - CROATIA



CROATIA

SEE with Muse

붉은 지붕과 푸른 아드리아해의 두브로브니크
로마 황제가 첫눈에 사랑에 빠진 스플리트
활기 넘치는 디자인의 도시 자그레브



STAY with Muse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묵은 엑셀시어 두브로브니크
하룻밤의 멋진 궁전 체험, 호텔 베스티볼 팰리스
도심 속 예쁜 캐노피, 캐노피 바이 힐튼 자그레브



EAT with Muse

재즈가 흐르는 디오클레티안 와인하우스
바닷가 옆 낭만의 미술랑레스토랑 펠레그리니
자그레브 명사들이 즐겨 찾는 진파델스 레스토랑



ENJOY with Muse

코발트블루 해변에서 즐기는 최고의 피크닉
라벤더향 흐바르섬에서 만나는 아가베레이스 장인
스르지 언덕에 올라 담은 두브로브니크의 파노라마



OUT OF THAILAND

열흘간의 대장정 끝에 완성한
태국 3부작

사원과 코끼리, 팟타이와 마사지가 전부인 관광지라고 생각했다면 완전한 편견이다.
남부부터 북부까지 열흘간의 대장정을 통해 만난 태국은
순간순간 생경한 감동을 마주하게 되는 대자연 속에 펼쳐진 거대한 스크린이었다.

에디터 임지영 / 사진 이용기 / 취재협조 각 촬영 플레이스들

KALPAK이 제안하는

[프레스티지 탑승]
푸켓 아만푸리(Amanpuri) 자유 5일

일정 푸켓(3)-기내(1)
가격 ₩ 3,663,200~
문의 02-726-5707

KALPAK이 제안하는

방콕의 새로운 랜드마크,
로즈우드 (Rosewood) 호텔 자유 5일

일정 방콕(3)-기내(1)
가격 ₩ 1,393,200~
문의 02-726-5707

KALPAK이 제안하는

[기내면세상품권/무료 룸 업그레이드]
방콕 페닌슐라(Peninsula) 자유 5일

일정 방콕(3)-기내(1)
가격 ₩ 1,243,200~
문의 02-726-5707



푸켓, 무비스타처럼 즐기기

태국에서 가장 큰 섬이자 태국을 대표하는 휴양지, 푸켓.
더 없이 매혹적인 이곳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 하루만이라도 제임스 본드가 되어 다양한 어드벤처를 즐기는 것이다.

LIKE A MOVIE STAR

제임스본드처럼 즐긴 롱테일보트 체험

푸켓은 얼핏 전형적인 휴양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조금도 전형적이지 않은 스킬 넘치는 체험과 어드벤처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다. 붓으로 그린 듯한 그림 같은 비경에 수많은 영화들이 촬영되었고, 이곳에 머물렀던 수많은 스타들이 사랑에 빠진 섬. 그 중 하나가 1970년대에 촬영된 007 시리즈였고, 영화의 로케이션이 된 팡아(Phang-Nga)는 그때부터 '제임스본드 섬'이라는 별명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비록 푸켓에서 촬영된 007 시리즈는 보지 못했지만, 영화의 로케이션이 되었던 곳만큼은 진짜 제임스 본드가 된 양 탐험하고 싶었다. 리조트에서 제공한 뱃을 타고 '유유자적 크루즈'가 펼쳐질 팡아만으로 향했다. 바다 속에서 솟아난 듯한 깎아지른 기암 절벽들이 숨바꼭질을 하거나 심장 졸이는 추격전을 벌이기에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변 한쪽에는 후미에 붉은 리본을 매단 롱테일 보트가 대기중이었다. 노 젓는 이에게 그 리본은 어떤 의미냐고 물으니 '순항을 기원하는 의미'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얼핏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에도 바다의 여신 칼립소가 사는 것일까. 보트에 조심스레 몸을 실었다. 이제 곧 푸켓에서 가장 흥분되는 체험이 시작될 판이었다.



Amanpuri Phuket
 Pansea Beach Cherngtalay,
 Thalang District, Phuket
 Tel: +66 76 324 333
 www.aman.com/resorts/amanpuri

비치 바의 향긋한 더블마티니

배가 만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가까워지는 에메랄드빛 비경은 동공을 확장시켰다. 마치 카푸치노의 거품을 젓듯 부드럽게 노를 젓는 가이드 덕분에 날렵하고 유연한 롱테일 보트는 불쑥불쑥 나타나는 기암 절벽과 작은 섬들을 용케 피하며 미끄러져 갔다. 푸켓 어드벤처에서 쌍벽을 이루는 영화 속 배경이 바로 이 제임스본드 섬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비치>가 촬영된 피피 섬이다. 둘 중 어느 쪽을 택했더라도 후회는 없었을 테지만, 이왕이면 아드레날린 넘치는 제임스 본드가 되는 쪽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았다. 섬과 섬 사이를 떠돌던 롱테일 보트는 아무도 없는 조용한 해변에 잠시 내려놓더니 휴식이 끝나자 다시 뱃머리를 푸켓으로 돌렸다. 쫓아오는 악당을 피해 기암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본드와 본드결은 없었지만 분명 영화 같은 체험이었다.

'제임스 본드라면 이 시점에서 뭘 마셨을까?' 리조트로 돌아와 해변의 비치 라운지로 향했다. 그리고 신사도 아니면서 제법 그럴싸한 '젠틀맨스 룸'에 앉아 더블마티니를 주문했다. 마티니에는 조그마한 '진 보틀'이 달려 나왔다. 한 모금 삼키니 갈증은 사라지고 향긋한 향만이 남았다. 바에서 바라보는 판씨 해변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으로 들어왔다.



링 위의 주인공이 되는 무에타이 킥복싱

오후에는 무에타이 레슨이 예약되어 있었다. 태국에 오면 꼭 해보고 싶던 체험이었다. '무아이타이', 또는 '무에타이 킥복싱'이라고도 불리는 무에타이(Muaythai)는 무려 천년 이상 전해 내려온 태국의 격투 무술로 팔과 다리를 고루 쓰는 운동이다. 트레이너는 화려한 타이틀을 자랑하는 전직 무에타이 선수. 글러브를 끼고 링 위에 오르자 이번에는 영화 속 복서가 된 느낌이었다. '호시우보(虎視牛步)',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걸음을 떼는 게 관건이었다. 트레이너는 무에타이가 힘과 절제, 균형의 스포츠임을 강조했다. 땀에 젖은 티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지만 끝난 후의 상쾌한 기분만큼은 최고조에 달한 체험이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해변의 디너

무비스타 체험의 마무리는 느긋한 티타임, 그리고 로맨틱한 해변에서의 저녁과 함께 시작되었다.

종이 울리며 시작된 티타임은 태국의 전통 차와 간식을 고루 맛볼 수 있는 작은 축연이었다. 곳곳에 배치된 꽃 장식에서는 감각의 조화를 중시 여기는 이들의 마음씀씀이가 느껴졌다. 판씨 해변의 저녁은 슬며시 찾아왔다. 해가 기울자, 물감처럼 물들어 가는 하늘 아래 해변 위, 더 없이 낭만적인 식탁이 차려졌다. 라임과 레몬그라스, 스위트 칠리 향이 고루 섞인 태국 전통 요리가 올라왔다. 바람에 간간이 흔들리는 촛불이 주변에 그럴싸한 베일을 드리웠다 거두곤 했다. 나도 모르게 분위기에 취해, 누구나 아는 영화 속 대사를 나지막이 읊조렸다. "My Name is Bond, James Bond." 저 멀리 팡아의 바다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임스 본드가 조금도 부럽지 않은 밤이었다.

1. 느긋한 남미풍의 비치 라운지
2. 일대일 무에타이 킥복싱 트레이닝
3. 요트를 타고 즐기는 수상 스키
4. 전통 후식을 고루 맛볼 수 있는 티타임
5. 해변에서의 낭만적인 캔들 디너





세상에 하나 뿐인 요리

THE PAPADISE KITCHEN

야오 노이 섬으로 향하는
케이브 보트

보트를 타고 45분. 푸켓이 아득해질 무렵 다가오는
정글 섬 야오 노이(Yao Noi)에는 더 없이 완벽한 파라다이스가 있다.
에덴동산에서 즐긴 100% 오가닉 쿂�클래스는 완전히 새로운 식도락의 세계였다.

오감으로는 설명이 불가한 제6의 감각. 머리가 형클어지도록 달린 쾌속 보트에서 내려 야오 노이 선착장에 발을 내딛은 순간 맛달뜨린 건 금세라도 심장이 멎을 듯 아름다운 파노라마였다. 과연 여섯 개의 감각으로 완성한 '식스 센스'다웠다. 마침 비가 뿌려 짙은 안개에 휩싸인 리조트는 더욱 신비로워 보였다. 100%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는 오가닉 가든은 어릴 적 할머니가 정성스레 가꾸시던 예쁜 텃밭을 연상시켰다. 에이프런을 두른 채 호미와 가위를 든 셰프를 따라 가든 구경에 나섰다. 빈 바구니에 금세 초록색 라임과 레몬그라스 줄기가 가득 찼다. 인테리어마저 완벽하게 친환경으로 꾸며진 주방에서 식스센스의 시그니처 '오가닉 쿂� 클래스'가 시작되었다. 평소 즐겨먹던 톰얌꿍에 가든에서 채취한 레몬그라스가 들어간다는 걸 처음 알았다. 쿂� 클래스 중 밟았던 비가 다시 쏟아졌다. 부티 셰프가 한쪽에 마련된 빗물 저장 수로를 보여주었다. "저장된 빗물은 다시 농사에 쓰일 거예요." 소중하지 않은 자원은 하나도 없었다. 분투(!) 끝에 카오팍꿍과 톰얌꿍, 쿱사롱이 완성되었다. 한쪽에 숲을 들인 야외 테라스에 앉아 셰프의 레시피에 따라 직접 요리한 음식을 즐겼다. 숲에서 새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이전까지는 맛보지 못했던 다른 새로운 차원의 식도락 체험이었다.

Six Senses Yao Noi
56 Moo 5 Tambol Koh Yao Noi,
Amphur Koh Yao, Phang Nga
Tel: +66 7641 8500
www.sixsenses.com/resorts/yao-noi/destination

KALPAK이 제안하는
푸켓 식스센스 야오노이
(Six Senses Yao Noi) 자유 6일
일정 푸켓(4)-기내(1)
가격 ₩ 2,823,200~
문의 02-726-5707



두 시간 반에 이르는 오가닉 쿂� 클래스는
식스센스 야오 노이에서 가장 흥미로운 체험이자 광경이다.
가든에서 직접 채취한 재료들이 생생한 컬러 조합으로
바구니에 담겨 나올 때 체험자는 어서 빨리 그 황홀한 만찬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

가든에서 채소를 채취하는
부티 셰프



FROM THE PURE NATURE

농부의 마음으로 가든을 돌보는 셰프
이그제큐티브 셰프 발터 부티 (Walter Butti)

“저는 야오 노이 섬이 정말 좋습니다. 푸르스름한 사파이어빛이 감도는 새벽도 근사하고 버건디 와인처럼 붉은 노을이 물드는 해질녘도 낭만적이거든요. 밤은 또 어떨까요? 친환경 라이프 실천을 위해 인공조명 사용을 최소화한 까닭에 블랙박스처럼 까맣죠. 무엇보다 좋은 건 이곳의 건강한 식단입니다. 이 섬에 건강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재료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식스 센스만 하더라도 리조트 내에 유기농 정원을 가꾸고 있죠. 곡식은 현지 농민들로부터 공정 거래로 구매하고 있고요. 라임, 생강, 마늘, 칠리 등 태국 요리의 기본 양념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리조트 내에서 거의 자급 자족이 가능합니다. 오가닉 쿂� 클래스를 만들면서 가장 많이 고려한 부분이 오가닉 가든 체험입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가든을 방문하고 정원에 심어진 라임나무에서 물기를 머금은 신선한 라임을 따서 맛본 사람은 절대 그 촉감, 그 맛을 잊지 않죠. 식스 센스의 오가닉 쿂� 클래스는 순수한 자연에서 갓 딴 것들이야말로 가장 영양가 있고 건강한 먹거리라는 단순한 철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 쿂� 클래스의 숨은 조력자, 식스센스 스태프들
- 2, 3. 갓 채취한 신선한 유기농 재료들
4. 요리의 기본이 되는 양념들과 레시피
5. 갈릭소스로 볶은 태국식 야채볶음요리
6. 푸켓 전통 요리인 콩사롱 (Goong Sarong)



전설 속 부족에게 배운 마법의 치유법

THE OLD REMEDY OF THE FOREST



푸껫에서 만날 수 있는 게 비단 바다만은 아니라는 것을, 깊은 열대 우림 속 스파 빌리지에서 깨달았다. 초록이 아주 강력한 힐링 효과를 전달하는 컬러라는 것도 말이다.

깊은 녹음 속 원더랜드 '말라' 스파

휴식에 마사지는 필수 조건이다. 더구나 '마사지의 천국' 푸껫에서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특별한 호사가 없을까 알아보던 중, 깊은 숲 속에 위치한 고대 부족마을 컨셉의 스파 빌지를 발견했다. 키말라(Keemala)는 카말라 비치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지대 녹음 속 원더랜드였다. 스파 공간은 하나의 소인국 마을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마을로 난 예쁜 길을 걷다가 무리에서 탈출한 용감한 오리들을 만났다. 진짜 동화 속 마법의 숲을 걷는 느낌이었다. 스파 서비스에 관한 한, 세계적인 상을 전부 휩쓴 말라(Mala) 스파는 넓은 바다, 대지, 불, 공기, 하늘의 각 요소를 도입하고 있었다. 마사지, 트리트먼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100% 이 지역에서 공수한 천연 원료였다. 매력적인 선택의 폭에 고민하다 이곳의 시그니처인 '씨워드랩햇스톤 트리트먼트'를 선택했다. 라임과 레몬그라스, 얇게 썬 생강이 뚝뚝 떠다니는, 세상에서 가장 향긋한



족욕을 마치자 차갑게 냉각한 미역으로 한번 감싸고, 그 위에 뜨거운 스톤을 얹는 트리트먼트가 시작되었다. 이른바 뜨거운 대지의 불과 차가운 바다가 교차하는 아주 흥미로운 트리트먼트였다.

전통 비법의 트리트먼트를 통한 힐링의 여정

잠시 스콜이 스쳐갔고 그 사이 깜빡 졸았던 모양이다. 눈을 떴을 때 깨달은 건, 눈 녹듯 사라진 신체의 피로였다. 며칠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던 중 단잠을 아주 달게 자고 일어난 것 같은 개운함이 느껴졌다. '프라이빗'은 분명 이너와 아우터를 모두 아우른 개념일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차단은 물론, 내적인 고요와 평정까지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키말라의 스파는 진정 '프라이빗'했다. 트리트먼트를 받는 두 시간 동안 나만의 소우주에서 혼자 수영(游泳)하고 있는 완벽한 느낌에 빠져들었다. 리조트에서 수확한 코코넛 열매를 직접 갈아 만든 코코넛 주스가 해독 음료로 제공되었다. 시설만 현대적으로 바뀌었을 뿐, 모든 게 오래 전 방식 그대로라고 했다. 전통 치유법을 접목한 색다른 트리트먼트 덕분에 소중한 힐링의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초록이 그토록 강렬한 컬러라는 것도 이곳에서 처음 실감했다. 물아일체가 된 듯한 침대에 누워 유리창 밖의 초록색 숲과 어디선가 들려오는 물소리, 새소리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이 별세계를 떠나기가 진정 싫어졌다.

1. 고대 부족마을에서 모티프를 얻은 키말라리조트
2. 코코넛열매를 직접 갈아만든 코코넛주스
3. 월드럭셔리스파상을 수상한 말라 스파
4. 라임, 레몬그라스, 진저향이 가득한 아로마배스

Keemala Phuket
10/88 Nakasud Rd, Kamala, Kathu, Kathu District, Phuket
Tel: +66 76 358 777
www.keema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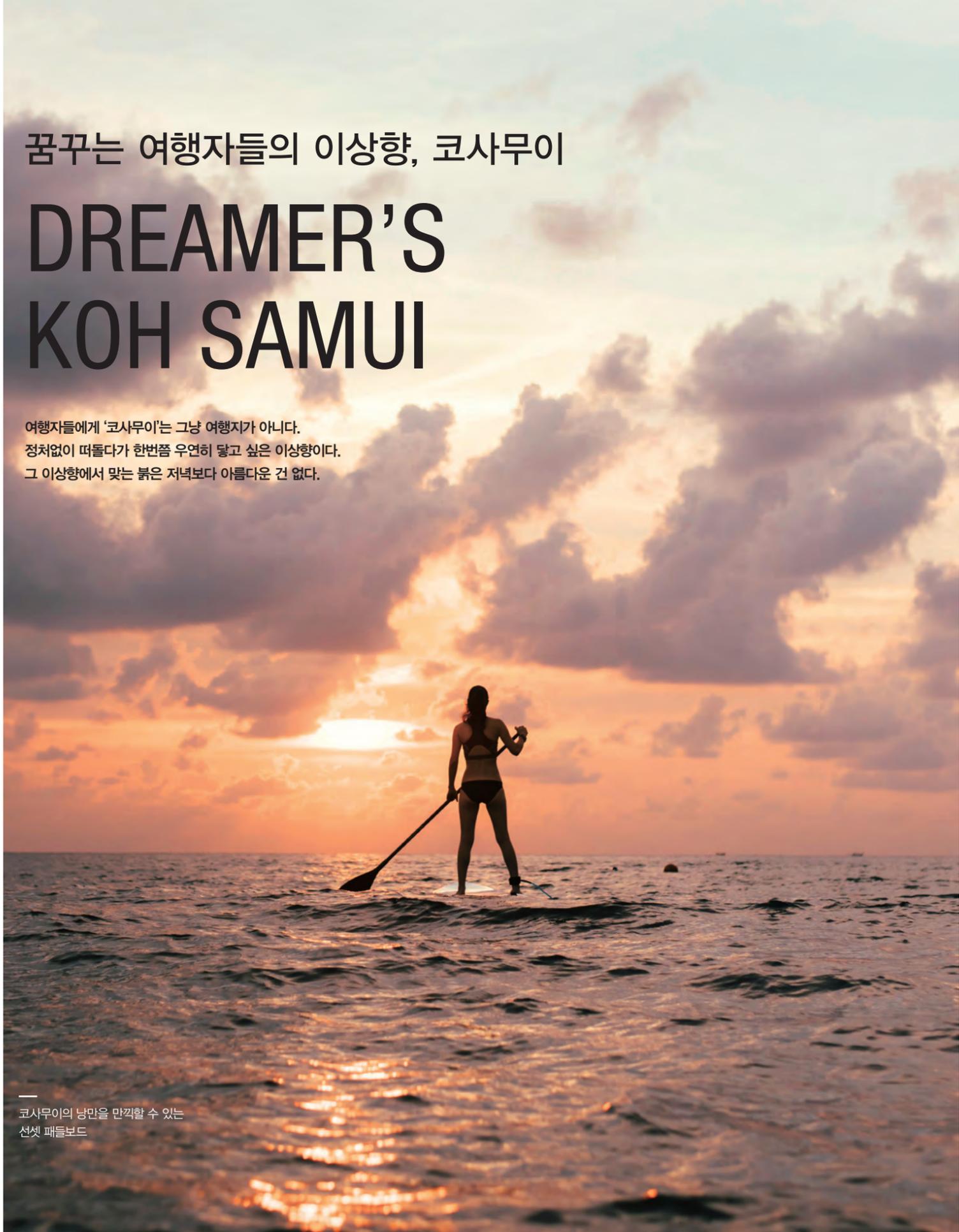


꿈꾸는 여행자들의 이상향, 코사무이

DREAMER'S KOH SAMUI

여행자들에게 '코사무이'는 그냥 여행지가 아니다.
정처없이 떠돌다가 한번쯤 우연히 닿고 싶은 이상향이다.
그 이상향에서 맞는 붉은 저녁보다 아름다운 건 없다.

코사무이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선셋 패들보드



낚시, 바비큐, 스노클링이 함께 한 항해

오전 10시. 크리스탈 베이(Crystal Bay) 해변의 모래가 아침 햇살에 수정처럼 빛나고 있었다. 주변이 온통 붓으로 그린 그림처럼 완벽했다. 짝조름한 소금기를 들숨으로 확인하는 순간, 비로소 코사무이에 왔다는 실감이 났다. 잠시 후, 선장의 에스코트와 함께 기다리고 있던 범선에 올랐다. 사무이 남쪽으로의 항해가 시작되었다. 2시간 여의 항해는 초목으로 뒤덮인 암반, 크고 작은 동굴 등이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들을 바다 위에 병풍처럼 펼쳐 놓았다. “자, 여기서부터가 피싱 포인트입니다.” 선장의 안내에 따라 낚시대를 잡았다. 한쪽에서는 승무원이 바비큐 파티를 준비했다. 신선한 계절 과일과 그릴, 다양한 타파스와 핑거푸드가 어우러진, 제법 스타일리시한 런치 뷔페였다. 아이스박스에서 갓 꺼낸 차가운 청량 음료로 열을 식히는 동안, 붉은, 혹은 노란 열대어들이 떼를 지어 군무를 추는 바다가 나타났다. 영화 <그랑블루>에서나 보던 투명할 정도로 새파란 바다였다. 준비해온 스노클링 장비를 갖추고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순간 놀란 열대어들이 잠시 흩어지다가 싶더니, 잠시 숨을 고르자 다시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지상의 태국인들처럼 바다 속 생물들도 아주 느긋했다.

- 1. 크루즈 도중 스노클링을 즐기는 사람들
- 2. 스릴 넘치는 워터스포츠인 카이보드



해질 무렵 절정에 이르는 코스무이의 아름다움

“사무이 섬은 언제나 눈부시지만, 그 중에서도 해질 무렵이 제일 근사해요.” 어디선가 들은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스릴과 재미가 어우러진 항해를 마치고 사무이로 돌아오니 노곤한 몸에 석양 속의 휴식이 더욱 절실해졌다. 해 질 무렵, 바다에 연꽃처럼 피어 오른 바에 앉았다. 이제 막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을 그리기 시작하는 하늘을 배경으로 연인들이 마치 꽃봉오리처럼 서로 어깨를 맞대고 있었다. 하늘을 닮아 오묘한 마블링으로 물든 칵테일 한 잔으로 목을 축인 후 패들 보드를 끼고 바다로 나갔다. 보드 위에 중심을 잡고 서서 노를 저었다. 파도도, 바람도 어느덧 잠잠해져 있었다. 노을로 점차 붉게 물들어가는 바다가 마치 커다란 한 잔의 칵테일로 느껴졌다. 맨하탄, 핑크레이디, 블러디메리...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바다에 멋대로 칵테일 이름을 갖다 붙였다. 지금껏 맛보지 못한 자유로움과 평온함이 느껴졌다. 끝도 없이 펼쳐진 망망대해가 오롯이 나만의 세상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자기만의 세계를 즐기는 패들 보더들이 보였다. 서로의 질서를 방해하지 않은 채 조금씩 자신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프론티어들. 그들 속에서 사무이의 밤이 아주 천천히 오고 있었다.



열대향 물씬 풍기는 마이타이와 모히토



코스무이의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W바

한국 최고의 씨사이드 골프코스 아난티 남해

ANANTI
NAMHAE



MANOHRA DINING CRUISE

TIME ON THE RIVER



불을 밝힌 왓아룬을 감상하며 정찬을 즐기는 크루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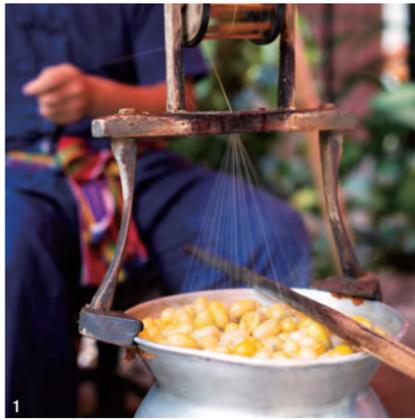
불밝힌 차오프라야강에서 즐기는 마노라 다이닝 크루즈

저녁 7시, 아난타라 리버사이드 방콕 리조트(Anantara Riverside Bangkok Resort)의 아난타라 피어에 등불이 하나 둘 켜진다. 화려하게 불을 밝힌 매혹적인 엔틱 바지션이 부두에 정박하더니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을 싣고 피어를 떠난다. 어둠이 깔리고 빛이 흩어지는 지금이야말로 '동양의 베니스'라 불리는 방콕의 야경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시간이다. 아난타라 리조트가 운영하는 마노라(Manohra) 다이닝 크루즈는 두 시간 동안 태국 전통음식으로 구성된 고급 코스 요리를 즐기면서 방콕의 명소, 왕실, 사원, 현대적인 랜드마크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유람이다. 세 가지의 전채요리, 퐁얌꿍, 그리고 네 개의 메인 코스와 두 개의 전통 디저트로 구성된 진미를 즐기는 동안 화려한 루미너리로 옷을 갈아입은 왓아룬, 아시아티크, 왓프라깨우 같은 명소들이 유유히 스쳐 지나간다. 우아한 티크 목재로 캐노피가 있는 전통적인 루아 크라샹 스타일로 제작된 단단한 나무 선박은 한때 방콕의 젓줄기 차오프라야 강을 오가는 주요 수송 수단이었다. 완전히 다른 빛에 감싸인 방콕의 매력을 감상하면서 밤의 여로를 즐기는 크루즈는 분명 잊을 수 없는 체험이다. 와인 잔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깰 때, 배는 화려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 보이고 밤은 아늑하게 깊어만 간다.

KALPAK이 제안하는

[디너 크루즈/전통 타이 마사지]
방콕 아난타라 (Anantara Siam)
자유 5일

일정 방콕(3)-기내(1)
가격 ₩ 1,693,200~
문의 02-726-5707



Jim Thompson's House
6 Kasaemsan Soi 2,
Thanon Rama 1, Bangkok

방콕, 실크, 그리고 짐 톰슨

BANGKOK, SILK AND A MAN



볼거리 많은 방콕에서 단연 최고의 볼거리는 사원과 '실크'다.
실크, 혹은 방콕의 현대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짐 톰슨 하우스는 꼭 들러야 할 '종합박물관'이다.

- 1, 2.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로 실크를 직조하는 과정
- 3. 짐 톰슨이 실제 거주했던 집
- 4. 실크 직조 과정을 직접 시연해보이는 태국 여성

KALPAK이 제안하는
[기내면세상품권]
방콕 더 시암 The Siam 스위트
자유 5일
일정 방콕(3)-기내(1)
가격 ₩ 1,603,200~
문의 02-726-5707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장교로 근무했던 짐 톰슨. 그가 실제 살았고, 그래서 아예 '짐 톰슨의 집'이라 명명된 목조 건물을 방문했다. 태국 실크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기록과 사료를 모아둔 장이 짐 톰슨이 밤새도록 실크를 연구한 그의 집일 테니까.

짐 톰슨은 당시만 해도 가내수공업 수준에 머물렀던 태국 실크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알아봤다. 그는 새로운 디자인과 컬러로 이 고전적인 풍경에 변화를 주고자 했다. 다양한 패턴을 도입한 것은 물론, 모던한 감각을 강조할 수 있는 컬러 조합을 시도한 것. 예상은 적중했고, 덕분에 태국 실크의 대표 브랜드 '짐 톰슨'이 탄생했다.

운치 있는 티크목 정원이 있는 목조 가옥에는 태국과 사랑에 빠진 그가 수집한 아시아 회화, 도자기 등 다양한 수집품이 전시되어 있다. 정원 속에 비밀스럽게 숨겨진 전통적인 태국 가옥 곳곳에는 실크에 대한 그의 애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흔적들이 넘쳐난다. 세계 시장에서 태국 실크를 대표하는 인물로 명성이 높은 짐 톰슨은 1967년 말레이시아의 카메룬 하이랜드를 방문하던 중 실종됐다. 도전과 모험의 인생 끝에 실종된, 소설 같은 창업자의 스토리에 짐 톰슨의 주가는 더욱 높아졌다. 박물관이자 갤러리, 카페 겸 숲이 된 그의 집에서는 누에고치가 견사로, 견사가 다시 실크가 되는 과정이 오늘도 생생히 재현되고 있다. 방콕의 아침을 유난히 사랑했던, 여생을 태국에서 실크 사업을 하며 보내고 싶었던 짐 톰슨. 그의 이름을 달고 나온 타이와 스카프, 핸드백은 그래서 더욱 특별하다.

과거를 현대로 변주하는 실크 여왕,
PICHITA

THAI SILK QUEEN

피치타는 실크가 가진 천 가지 표정을 읽어내는 디자이너다.
'실크여왕'이라는 영예로운 닉네임에는 정교하고 다루기 어려운 패브릭에 대한
그녀만의 고집스러운 철학이 자리하고 있다.



아틀리에 피치타는 태국 실크 패션을 설명하는 가장 명료한 형용사나 다름없어요.
많고 많은 소재 중 실크를 고집한 이유가 있나요?

어머니의 뒤를 이어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실크는 제게 운명으로
다가왔어요. 파리 유학에서 돌아온 80년대 중반, 방콕의 여성들은 거의 서양식 패션을
입고 다녔어요. 그걸 보고 오히려 전통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연구하게 되었
죠. 그래서 찾은 답이 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소재인 '실크'였어요.

흔히 하나의 대명사로 불리는 '타이 실크'에는 어떤 특징이, 그리고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보통 실크를 고급스럽지만 다루기 까다로운 소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크야말로
크래프티한 '손 맛'을 강조할 수 있는 최고의 소재예요. 중국 실크와 달리 태국 실크
에는 강인함이 있어요. 중국 실크가 마냥 매끄러운데 반해, 태국 실크에서는 입체적
인 텍스처가 느껴지죠. 덕분에 다양한 방식의 가공이 가능해요. '이게 정말 실크인
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 모습으로 변신하기도 하고요.

전통도 전통이지만, 패션은 트렌드도 고려해야 하죠.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꾀하나요?

태국은 지역마다 실크를 다루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요. 패턴도 다르고요. 생각보다
스펙트럼이 넓은 소재랍니다. 요컨대 이번 시즌 트렌드가 '에스닉'이라면 북부 소수부
족의 실크를 사용해 저만의 색깔을 입혀요. 소수부족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실크를
완성하는 건 존중하되 그걸 현대적 감각으로 변주하는 건 오롯이 제 몫인 거죠.

Atelier Pichita
77/7 Ekkamai 12,
North Klongton, Watthana, Bangkok
Tel: +66 2 381 5390





최근 몇 년간 방콕은 디자인시티로 급부상해왔어요.

방콕의 디자인 신이 변모하는 걸 누구보다 가까이서 목도했을 것 같은데.

방콕서 태어나고 자란 방콕 토박이로 변화는 일상의 일부였지만, 요즘의 변화는 범위와 속도에서 놀라울 정도예요. 각국을 여행하지만 방콕만큼 빠르게 변하는 도시도 없는 것 같아요. 방콕은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도시예요. 전통은 전통대로 유지되고 신 문물은 신 문물대로 유입되죠. 재미있는 건, 둘이 부딪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복합 문화야말로 뉴욕이나 런던이 부럽지 않은 오늘날 방콕의 디자인 신을 완성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방콕'을 경험하고 싶다면 뭘 해야 할까요?

어떤 식으로든 실크를 경험하라고 하고 싶어요(웃음). 부드럽고 섬세하며,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다양한 요소와의 조화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방콕식 삶'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메종 드 피치타(Maison de Pichita)' '실크 여왕'은 이제 디자인 제국을 어패럴에서 인테리어로 확장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도시를 지탱해온 과거의 화려한 문화유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방콕을 꿈틀거리게 하는 변화에 대한 희망을 모두 짊어지고 말이다.

맛있어도 너무 맛있는 방콕

DELICIOUS BANGKOK

방콕은 넓고 '맛집'은 너무나 많다.

아시아 최고의 미식을 즐길 수 있는 스타급 핫플레이스들이 차고도 넘친다.

'가성비'가 절대적인 선택의 기준이 되는 시대. 방콕이 수년째 세계 최고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1위를 차지한 배경에는 '가성비'라는 엄청난 매력이 도사리고 있다. 팔색조처럼 술하게 외피를 갈아치우는,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방콕이지만 그 중 가장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건 뭐니뭐니 해도 방콕의 '미식 지형'일 것이다. 방콕은 팻타이 같은 혼한 스트리트 푸드조차 당당히 미슐랭 원스타를 획득하는 '미슐랭'의 도시이자 아시아에서는 도쿄 다음으로 맛집이 많은 미식의 도시이다. 게다가 '별을 따는' 레스토랑들의 수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어 도쿄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 방콕에서 즐기는 미식 체험, 이쯤 되면 트렌드가 아니라 패러다임으로 불려야 하지 않을까.





❶ 소소피텔 방콕 SO SOFITEL BANGKOK

2 North Sathorn Road, Bangkok / +66 26 24 0000 / www.so-sofitel-bangkok.com

상위 1%의 미식가를 자처하는 여행자라면 '소소피텔'이라는 이름을 꼭 기억할 것. 방콕의 글래머를 잘 보여주는 이 호텔에서는 세계적인 미슐랭 스타 셰프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대한 테이블이 마련된다.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소소피텔 호텔 내 레스토랑들을 무대로 펼쳐지는 '소어메이징 셰프 2019(So Amazing Chef 2019)'는 이 기간 방콕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되는 진귀한 체험이다. 8명의 미슐랭 셰프와 8가지 메뉴, 그리고 8번째 에디션의 만남이 방콕이라는 다이닝 허브에 놀라운 미식 서사시를 새로 쓰게 된다. 뉴욕을 무대로 하는 미슐랭 3스타 셰프인 닉 킴(Nick Kim)부터 프랑스 카스트르에서 온 사이먼 스캇(Simon Scott)까지 세계적인 셰프들이 '오이스터', '브라세리', 'VIP 테이블' 등을 주제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테이블의 마법을 선보인다.

KALPAK이 제안하는

[딜리셔스 방콕]
소소피텔에서 미슐랭 셰프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5일

일정 방콕(3)-기내(1)
가격 ₩ 1,613,200~
문의 02-726-5707



❷ 남사 보틀링 트러스트 NAMSAAH BOTTLING TRUST

2 North Sathorn Road, Bangkok / +66 26 24 0000 / www.so-sofitel-bangkok.com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분홍색 식민지 시대의 저택에 자리 잡은 바 겸 레스토랑. 정상급 미슐로지스트이 선보이는 열대향 가득한 칵테일과 진귀한 빈티지 소품들이 순식간에 우리를 몇 세기 전 방콕으로 데려다 준다.

❸ 스라부아 바이 킨킨 SRA BUA by KIIN KIIN

2 North Sathorn Road, Bangkok / +66 26 24 0000 / www.so-sofitel-bangkok.com

캠핀스키 호텔 내에 위치한 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 덴마크, 태국 출신 톱 셰프들의 콜라보로 탄생한 '쿠튀르'급 비주얼의 메뉴들이 깐깐한 드레스코드의 번거로움도 잊게 만든다.

❹ 싸완 SAAWAAN

2 North Sathorn Road, Bangkok / +66 26 24 0000 / www.so-sofitel-bangkok.com

의심의 여지없이 방콕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독창적인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 미슐랭 1스타를 자랑하는 태국 출신의 듀오 셰프가 상상을 전복하는 태국 요리들로 미각에 즐거움을 선사한다.



❺ 더하우스 온 사톤 THE HOUSE ON SATHORN

2 North Sathorn Road, Bangkok / +66 26 24 0000 / www.so-sofitel-bangkok.com

고풍스러운 식민지 시대 건물을 개조한 우아하고 럭셔리한 올리브그린 레스토랑. 추천 방문 시간과 메뉴는 오후 2시부터 만끽할 수 있는 애프터눈 티세트, 달콤한 디저트가 18세기 방콕의 귀족이 된 듯한 기분에 젖게 만든다.



현재의 토대가 된
찬란한 과거의 도시

THE ANCIENT SIAM CITY

‘방콕이 굉장한 이유는 카오스 그 자체가기 때문이다.’ 태국의 한 유명 건축가가 말했듯 방콕은 무수한 경험이 가능한 도시지만, 동시에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사원의 도시이기도 하다. 오리엔트 특급 체험에 정점을 찍어줄 하이라이트는 방콕과 천년 고도 아유타야의 폐허에 흠뻑 흠뻑 흠뻑 수많은 불상과 사원을 만나는 것이다. 오래 전 수코타이에 이어 태국의 두번째 수도로 지정되었던 아유타야는 마치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를 보는 것 같은 도시다. 18세기 버마인들의 침략으로 파괴된 아유타야 왕조의 유적만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91년 유네스코 문화유산 도시로 지정되었다. 고대 도시를 재현한 모양보란이나 세계 최고의 불탑인 나컨 빠툼에서 과거의 영화를 회상하는 것은 태국을 만나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다. 잔잔한 수면 위에 고고하게 떠오른 황금 파빌리온과 첨탑 위에 도시가 지나온 역사가 한 눈에 그려진다.



- 1.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도이수텡의 승려
- 2. 손으로 깎아만든 비누공예품
- 3. 치앙마이 나이트바자



WALKING THROUGH THE ANCIENT TIME CHIANG MAI

치앙마이 올드시티는 걷기에 좋은 곳이다. 골목 골목, 과거로의 여행을 소망하는 여행자에게는 반가운 동네일 수밖에 없다.

KALPAK이 제안하는

[조기예약할인]
치앙마이 아난타라(Anantara)
스위트 자유 5일

일정 치앙마이(3)-기내(1)
가격 ₩ 1,493,200~
문의 02-726-5707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사찰인
도이수텡

나를 만나러 가는 길과 계단들

“길을 걷는 것은 때로 잊었던 기억을 다시 찾는 기회이기도 하다.” 다비드 르 브로통의 <걷기예찬>을 읽은 후로, 걷는다는 것은 과거로의 여행이 되었다. 치앙마이 올드시티는 걷기에 적합한 곳이다. ‘New City’라는 의미의 치앙마이와 ‘Old City’는 아 이러니하게도 과거로의 여행을 소망하는 여행자에게는 반가운 동네다. 700년 전 란나 왕국의 고도를 발로 밟으며 무너진 고대의 벽과 해자를 따라 걸음을 옮긴다. 작은 동네인 만큼 길을 잃어도 무방하다. 해매는 걸음마다 아름다운 사원과 예쁜 카페를 만난다. 산책에 나만의 골목길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함께 한다. 주말이 되면 올드시티는 각종 마켓들로 화려해진다. 예술가들의 도시라 불리는 치앙마이답게, 화려한 공예품은 물론 다채로운 푸드 마켓이 가까이 지갑을 열게 한다.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도이수텡으로 향한다. 치앙마이에서 반드시 찾아봐야 할 곳이 역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장소인 도이수텡이다. 무려 309개의 계단을 오르면 도이수텡의 상징인 황금탑이 위용을 드러낸다. 사원 뒤편으로는 치앙마이 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 겹겹이 둘러싼 산과 가옥들이 구름 아래 서로 닿을 듯 아스라이 펼쳐져 있다.





매림이라는 작지만 완벽한 낙원

KNOCKING ON HEAVEN'S DOOR

계단식 논과 병풍처럼 둘러진 산, 목가적 풍경의 일부가 되는 농부들.
오후 해질녘 농가(農歌)가 울리면 '태국의 영혼' 매림은 낙원으로 변한다.



1.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매림의 목가적 풍경
2. 전통 의상을 걸친 여인의 그림을 걸어둔 스파룸
3. 북부 전통 요리를 선보이는 셰프
4. 핸드페인팅으로 완성한 보상 우산

KALPAK이 제안하는
[Golf 2회]
치앙마이 포시즌(Four Seasons) 5일
일정 치앙마이(3)-기내(1)
가격 ₩ 3,243,200 ~
문의 02-726-5707

Four Seasons Resort Chiang Mai
Mae Rim-Samoeng Old Road 502
Chiang Mai
Tel: +66 53 298 181
www.fourseasons.com/chiangmai/

해질 녘 울려 퍼지는 농가에 마음의 집을 내려놓는 곳

치앙마이 도심에서 차로 30분 거리. 누군가 태국의 영혼이자, 맛의 시작점이라고 일러준 매림으로 향했다. 농촌 마을인 매림(Mae Rim Valley) 한 가운데 폭 파묻혀 있는 포시즌 리조트는 더 이상 전형적인 휴양지의 풍경이 아니었다. 리조트를 둘러싼 눈에서는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초록의 논 사이로 뿌려진 울망줄망한 오솔길 풍경은 어딘가 묵직하게 걸려 있던 마음속 짐을 푼 내려놓게 했다. 스파 체험을 하는 동안 한나절이 훌쩍 지나갔다. 이런 곳이라면 쫓기듯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충분한 하루를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쌀이 나는 곳의 음식이 맛있다는 건 불변의 법칙과도 같다. 쌀 생산지 매림은 맛의 고장이다. 농부까지 거느리며 농사를 짓는 이곳이야말로 쿡킹 스쿨을 이수하기에 최적일 거란 생각에 이 지역의 이름을 딴 '림타이 키친'에서 자연의 향이 듬뿍 담긴 북부 전통 요리를 배웠다. '토르'라는 신화적 이름을 가진 셰프가 북부 음식은 덜 맵고 덜 시다고 알려주었다. 그를 따라 만든 그린파파야 샐러드는 새콤하고 팻타이는 달콤했으며 레드 커리는 매콤했다. 로열블루 유니폼을 입은 웨이트리스가 조금 전 쿡킹스쿨에서 파파야를 깎으며 직접 만든 요리들을 정성스레 담아 내왔다. 어디선가 낯선 음악이 들려와 무심코 창 밖을 내다본 순간 농부들의 귀가 행렬이 눈에 들어왔다.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전통악기를 연주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퍼레이드가 있거든요." 로비에서 들은 설명이 언뜻 떠올랐다. 해질 무렵이 되자 환상적인 풍경이 다시금 펼쳐졌다. 계단식 논과 산, 눈앞의 정글이 오랜지빛으로 서서히 물들고 있었다.



태국 여행의 완성판, 치앙라이

A LITTLE THAI, CHIANG RAI

골든 트라이앵글로 향하는 관문 도시, 치앙라이.
자칫 치앙마이에 부속된 지역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치앙마이의 그늘에 가려 있기에,
치앙라이는 매력적인 볼거리가 너무도 많은 곳이다.



- 1. 치앙라이의 명물이 된 순백의 화이트템플
- 2. 소원을 적은 트리를 바라보는 연인들
- 3. 몽족이 만든 장신구의 장식



소원성취, 희망을 뜻하는 순백의 사원

치앙마이에서 치앙라이로 향하던 아침, 도로에는 비가 쏟아졌다. 공사 중이던 도로는 금세 흠뻑으로 붉게 물들었고 주변의 밀림은 계속해서 빗물을 토해냈다. 그럼에도 차를 돌릴 생각은 없었다. 신비로운 풍경이 계속해서 오버랩되는 여정이 말로만 듣던 '골든 트라이앵글'이었던 때문이다. 오래 전 란나 왕국의 수도였던 치앙라이는 치앙마이와 함께 태국 북부를 대표하는 곳으로 손꼽힌다. 북부의 소도시가 주는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매력적인 관광 스폿들이 넘쳐난다. 그 중에서도 왓 룡쿤 (Wat Rong Khun)이라 불리는 화이트 템플은 치앙라이에서 가장 유명한 사원이자 슬픈 전설이 어린 곳이다. 태국의 유명 예술가이자 건축가인 찰름차이 코시피팻이 꿈에서 본 어머니의 소원을 받들어 순결을 뜻하는 순백의 유리 와 대리석으로만 시공한 사원이 바로 왓 룡쿤이다. 백색 사원에는 코끼리, 나가, 백조, 사자 등 불교적 상징이 빼곡히 새겨져 있으며, 새하얀 본당 주위에는 은색 플레이트들이 걸린 거대한 나무가 서 있다. 이른바 '호프 트리(Hope Tree)'다. 독어, 영어, 중국어... 다양한 언어로 소원을 적는 연인들 사이에서 소원 한 줄을 적어 희망의 나무에 걸었다.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수채화 같은 풍경

치앙라이에서 골든 트라이앵글 방향으로 향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부족 마을을 지나치게 된다. 미얀마, 중국 남부, 라오스에서 건너온 부족들이 태국 북부 산간 지대에 흩어져 그들만의 작은 문화권을 형성해 살고 있는 것. 몽족, 카렌족, 리수족, 아오족, 아카족 등으로 분류되는 고산족들은 주로 수공예품을 만들어 팔거나 치앙라이 주변의 트레킹 투어 상품을 안내하며 근근한 생활을 이어 나간다. 아직 옛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이 '살아있는 박물관'을 놓칠 순 없었다. 일명 '목이 긴 부족'으로 불리는 카렌족이 사는 마을에 들렀다. 길은 험했으나 당도했을 때 눈 앞에 펼쳐진 장면은 차마 믿을 수 없는 수세기 전 생활상이었다. 황금 고리를 목에 끼운 채 노래를 흥얼거리며 사뿐한 발걸음으로 논길을 걷는 소녀들이 보였다. 어머니가 삶바느질로 밤새 기워 만들었을, 소녀들의 형형색색 옷과 장신구들도 눈에 들어왔다. 뒤로 펼쳐진 넓은 초원에서는 어린 코끼리 한 마리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다. 그의 어미로 보이는 코끼리가 저 멀리에서 이따금 그를 지켜볼 뿐이었다. 문명은 분명 놀라운 진보지만, 그런 발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다. 바로 지금처럼. 어딘지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풍경이었다.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시절에 대한 향수를, 눈과 산을 벗삼은 고산족 소녀들, 광활한 초원을 놀이터 삼은 코끼리가 한 폭의 수채화로 담아내고 있었다.





숲길을 따라 걸으면 나오는 밀림 속 스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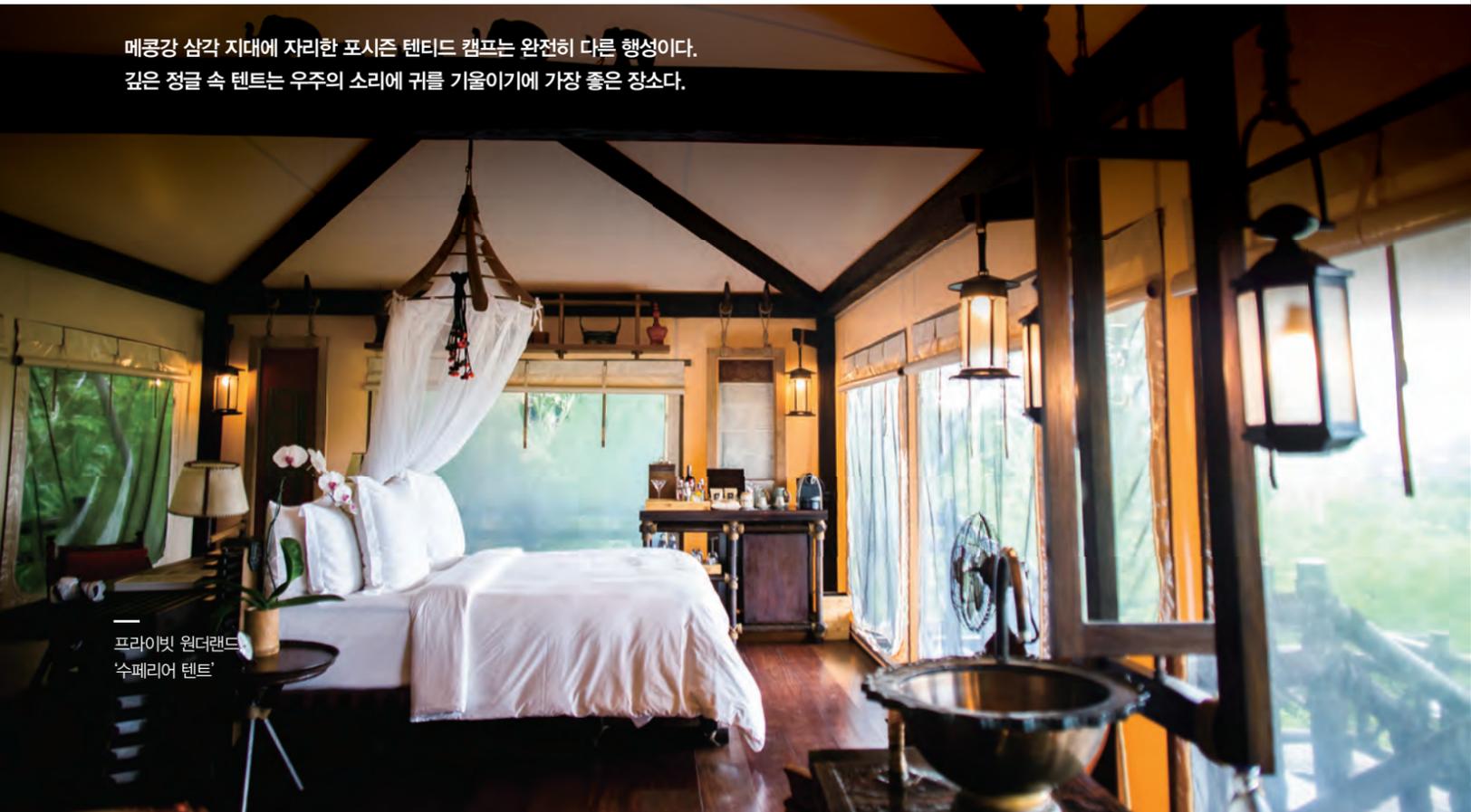
소금에 칠리파우더를 얹은 정글 마티니

Four Seasons
Tented Camp Golden Triangle
499 MOO1 T. Vieng,
Chiang Saen District, Chiang Rai
Tel: +66 53 910 200
www.fourseasons.com/goldentriangle/

정글에서 쓴 나만의 정글 북

THE SOUNDS OF THE _

메콩강 삼각 지대에 자리한 포시즌 텐티드 캠프는 완전히 다른 행성이다.
깊은 정글 속 텐트는 우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에 가장 좋은 장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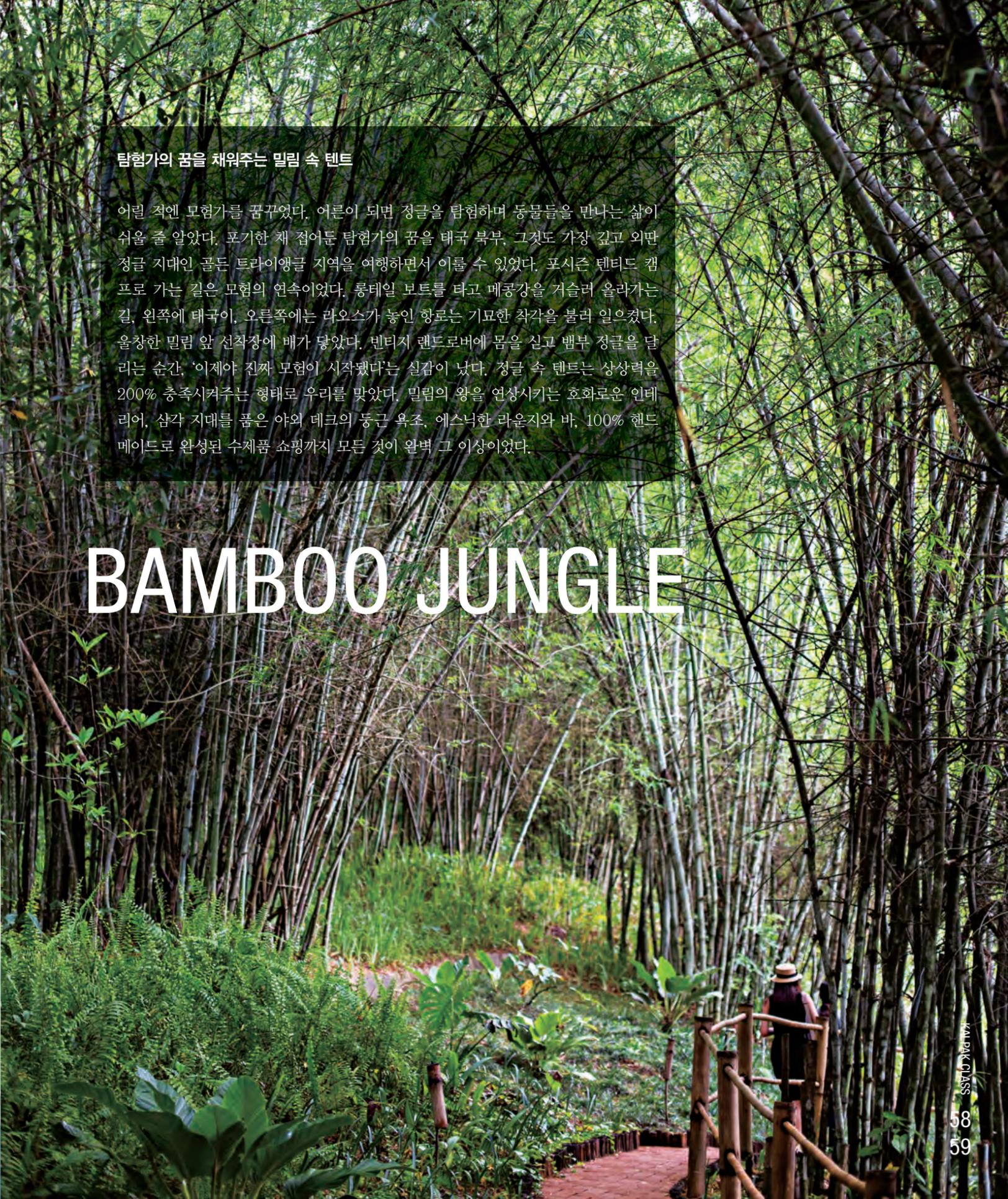


프라이빗 윈더랜드
수페리어 텐트

탐험가의 꿈을 채워주는 밀림 속 텐트

어릴 적엔 모험가를 꿈꾸었다. 어른이 되면 정글을 탐험하며 동물들을 만나는 삶이 쉬울 줄 알았다. 포기한 채 접어둔 탐험가의 꿈을 태국 북부, 그것도 가장 깊고 외딴 정글 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여행하면서 이룰 수 있었다. 포시즌 텐티드 캠프로 가는 길은 모험의 연속이었다. 롱테일 보트를 타고 메콩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 왼쪽에 태국이, 오른쪽에는 라오스가 놓인 항로는 기묘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울창한 밀림 앞 선착장에 배가 닿았다. 텐티지 랜드로버에 몸을 싣고 뱀부 정글을 달리는 순간, '이제야 진짜 모험이 시작됐다'는 실감이 났다. 정글 속 텐트는 상상력을 200% 충족시켜주는 형태로 우리를 맞았다. 밀림의 왕을 연상시키는 호화로운 인테리어, 삼각 지대를 품은 야외 테크의 둥근 욕조, 에스닉한 라운지와 바, 100% 핸드메이드로 완성된 수제품 쇼핑까지 모든 것이 완벽 그 이상이었다.

BAMBOO JUNGLE



감동 그 이상의 울림을 선사하는 자연과의 교감

다음 날, 코끼리 산책에 동행하기로 했다. 이 녀석들과 친해지기 위해 이른 아침 일어나 얼굴을 익히러 가는 수고도 개의치 않았던 터였다. 내가 만난 녀석의 이름은 폰스리. 가까이 다가가 쓰다듬자, 가만히 바라본다. 이 아름답고 커다란 친구는, 다리를 살짝 구부려 내가 자기 등에 올라탈 수 있도록 해주었다. 크고 강하지만 섬세하고 영민한 코끼리와 시간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교감이었다. 숲을 산책하고 강에서 물놀이를 하는 동안 우리는 친구가 됐다. 천천히, 그리고 다정하게. 그 날 저녁, 일과를 마친 폰스리가 친구들과 캠프에서 쉬는 동안 우리는 코끼리 캠프에서 근사한 캔들 디너를 즐겼다. 폴벌레 소리, 이름 모를 새 소리, 메콩강의 물줄기 소리가 섞여 낭만적인 앙상블을 연출했다. 어째서 이 북부 밀림 지역을 태국의 '영혼'이라 일컫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별 때문인지, 숲 때문인지, 아니면 코끼리 때문인지 영혼이 충만해지는 밤이었다.



1. 소수 부족이 핸드메이드로 만든 에스닉백
2. 골든 트라이앵글을 조망하는 야외 데크의 욕조
3. 빈티지 랜드로버를 타고 즐기는 정글탐험
- 4, 5. 코끼리 캠프에서의 낭만적인 캔들 디너
6. 캠프 곳곳을 수놓은 수반 장식
7. 캠프의 코끼리들과 함께 하는 트레킹



EPILOGUE

여행은 짧지만 여행의 기억은 길다. 태국 대장정에 감초가 되어준 추억 조각들.



“으악!” 처음엔 비명이 터졌다. 키말라의 핫스톤 씨워드랩은 얼음처럼 차갑고 불처럼 뜨거웠다. 온도보다 더 놀라웠던 건 피로 회복 효과였다.



차오프라야강을 밝히는 아난타라 리버사이드의 앤틱 바지선은 낭만의 정점이었다. 과거를 현재로 끌어온 듯한, 타임머신 같은 크루즈였다.



자전거를 탄 소녀가 우리 앞을 지나갔다. 보석 같은 유적들을 찬찬히 둘러보는 가장 근사한 방법! 자전거가 '진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황금에 대한 선호도로 따지자면 결코 중국 못지 않다. 부, 명예, 영생 등 모든 것은 황금색으로 칠해져 있다. 자고로 태국에서 황금은 '길'하다.



오렌지색 승복 자락을 휘날리며 승려 한 분이 방콕역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시계도 보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한 얼굴로 기차를 기다렸다.



보라색 자수정부터 파란 터키석, 석류처럼 붉은 루비까지, 태국은 보석 원산지다. 탄생석 반지나 목걸이를 스스로에게 선물해보면 어떨까.



치앙마이 나이트바자에 기타를 둘러멘 '반데라스'가 떴다. 그가 부른 본 조비의 "It's My Life!" 덕분에 생애 가장 낭만적인 밤을 보냈다.



“힘이 토르만콤 세서 칼질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포시즌 치앙마이 림타이 키친의 토르 세프와 그의 팀 덕분에 쿨링스쿨 내내 웃었다.



포시즌 텐티드 캠프 풀 빌라의 정글 풀을 본 순간 말을 잃고 말았다. 형언이 불가능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볼을 꼬집었다. 다행히 아팠다.



BANGKOK CHANNEL ILLUSTRATION MAP

차오프라야강 따라, 일러스트맵으로 보는 방콕의 명소들

IT SPOT ON THE MAP
JIM THOMPSON HOUSE
 세계적인 실크브랜드 '짐 톰슨'의 역사와 실크 제품 연대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 겸 갤러리, 카페. 호화로우면서도 격조 있는 태국 상류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6 Rama I Rd, Khwaeng Wang Mai, Khet Pathum Wan, Krung Thep Maha Nakhon
 +66 2 216 7368

MY LIFE WITH NO REGRET

예술감독으로 인생 제2막 연 프리마돈나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남다른 에너지로 전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에서 국립발레단의 예술감독으로 인생 제2막을 써 내려가고 있는 강수진 단장이 그런 사람이다. 매순간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인생 후회 없노라고 담담히, 그리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 강수진의 '인생' 필모그래피.

에디터 임지영 / 사진 이용기



피나는 도전과 발전이 만든 프리마돈나의 삶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는 말이 있다. 최고의 자리는 그래서 영예롭고 어렵다. 그녀의 남편이 찍었다는 '못생긴 발'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왕관의 무게에 공감한 이유는 그 발에 담긴 노고와 분투의 세월을 고스란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열다섯에 발레를 시작해 3년만에 '10만 명 중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발레리나'라는 찬사를 들으며 모나코 왕립발레학교에 입학했고,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서 최고의 발레리나로 거듭난 프리마돈나. 강수진이 걸어온 여정은 눈부시다. "정말 후회없이 살았어요. 놀라운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행복한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늘 그 순간만을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그게 지금껏 강수진이 그려온 궤적이었어요."

공연 때문에 워낙 많은 곳을 여행했고, 그 때문에 여행을 일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나를 돌볼 여유가 생겼어요. 여행을 통해 그동안 보지 못한 나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도 근사하지 않을까요?



발레리나로서의 마지막 무대였던 <오네긴> @Stuttgartballet

무대에 선 30년 내내 '프리마돈나'라는 타이틀을 놓치지 않은 강수진이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으로 돌아왔다.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싶다는, 알고 보면 강수진의 9할을 이루는 사랑과 사명감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모든 공연은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고정관념부터 깨고 싶었어요. 문화를 즐길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수, 울산 등 지방에서 창작발레 <호이 랑>의 첫 무대를 올리기로 했죠. KALPAK도 공연 감상을 겸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나요? 문화예술 공연이 일상으로 스며들면서 관객들의 수준이 워낙 높아지기도 했어요."

몇 년간 그녀를 지켜본 국립발레단의 관계자는 '유명세에 놀라우리만치 초연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귀띔해주었다. 최고의 발레리나에서 최고의 위치인 예술감독이 된 지금도 자세를 낮추어 배우려 하는 사람이 강수진이다.

매순간 즐기는 자세로 빛나는 피날레 장식할 것

“발레리나였을 때 스스로 한계를 깨는 게 목표였다면, 지금은 다른 무용수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이들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게 즐거워요. 그게 곧 저의 가능성이기도 하거든요.”



@Korean National Ballet

절대 시간을 어기는 법이 없다. 말 한마디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예술감독이 되고 처음 단원들에게 했던 약속을 아직까지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다. 그래야 두 발을 디디고 있는 땅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을 아는 까닭이다. 물론, 달라진 점도 있다. 채찍질 못지 않게 당근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다. “나이를 먹다 보니 휴식도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요즘은 하루에 20~30분씩 명상을 하고 온전히 나만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흐르는 강물 속에서 지금껏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물살을 거스르기도 했다면, 앞으로는 그 흐름에 자유롭게 몸을 맡기는 게 그녀의 바람이다. “공연 때문에 워낙 많은 곳을 여행했고, 그래서 여행을 일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행을 통해 나를 돌보는, 나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도 근사하다고 생각해요. 여유와 깊이를 강조하는 여행에 요즘 자꾸 눈길이 가는 이유죠.” 2016년 <오네긴> 공연을 끝으로 갈채 속에 프리마돈나라는 왕관을 벗었지만, 예술감독이라는 봉을 쥔 지금부터는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이라며 눈을 반짝인다. “인생에는 수많은 업앤다운이 있어요. 업일 때는 겸손하려고 노력했고 다운일 때는 극복하려고 노력했어요. 한 순간도 굴곡이 없어서가 아니라 매 순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도 강수진으로 살 거예요.” 훗날 되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강수진의 인생일 거라는 그녀. 어떤 파도와 기착지를 만나든 즐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수진의 향해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삶의 무대에서 몰아치는 파도를 만나면
누구나 주저앉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 파도가 나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
두 손에 꼭 쥐 열정을 놓치지 않는다면,
열정으로 벽찬 가슴을 믿는다면
그 무대는 온전히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강수진 저서 <한 걸음을 걸어도 나답게> 중에서 -





COFFEE around the world

검은 유혹에 이끌려
불면의 여행을 떠나다

커피 세계일주


Hawaii


Brazil


Ethiopia


Indonesia

이 한 모금의 깊고 나직한 슽스름함이 단지 각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커피는 지나치게 화려하고 쓸데없이 유혹적이다.
이제는 우리 일상과 뗄 수 없는, 단잠과도 가까이 맞바꿀 커피,
그 향기로운 산지로의 여행.

에디터 김홍주



브라질 이상적인 기후와 비옥한 토양이 빚어낸 균형감

카니발과 삼바로 들쭉이는 ‘열정의 나라’ 브라질은 전 세계 생산량의 1/3을 담당하는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이다. 넓고 비옥한 토양과 최적의 기후 덕에 다양한 품종과 품질의 원두가 생산된다. 그중에서도 해발고도 800m, 연평균 18.2℃의 온화한 기온, ‘테라로사’로 불리는 양질의 토양을 갖춘 상파울루와 낮은 산지, 평원으로 이뤄진 미나스제라이스가 주요 생산지. 브라질 커피로 대표되는 상파울루 산토스 원두는 부드러운 풍미와 신맛이 균형을 이뤄 에스프레소 베이스 블렌딩에 널리 쓰이며, 미나스제라이스의 핵심 재배 지역인 술데미나스의 원두는 감귤류와 꽃의 상큼한 풍미로 브라질 최고 원두로 평가받는다. 브라질 커피는 어디에나 어울리는 조화로운 맛과 깊은 향이 특징인데, 이러한 맛과 향은 특히 이탈리아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에티오피아 커피의 본고장이 내놓는 고품질 원두의 탁월함

‘커피의 고향’으로도 일컬어지는 아라비카 커피의 원산지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최대 커피 생산국이다. 적도의 고지대에 있어 천혜의 커피 재배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도 전통적인 유기농법과 그늘 경작법, 자연 건조법으로 커피를 재배하는 것이 특징. 가장 많이 알려진 생산지는 예가체프, 시다모, 하라 등이며, 특히 예가체프 커피는 국내 어느 커피숍에서도 쉽게 맛볼 수 있을 만큼 한국인이 좋아하는 에티오피아 대표 커피다. 수도에서 남쪽으로 395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코케는 공정무역과 유기농 커피 인증을 받은 지역으로, 이곳 커피 농장 가운데 ‘벨로야’는 커피 과학자 케네스 데이비스가 높은 커피 점수를 매긴 것으로 유명하다. 에티오피아 커피의 특징은 풍부한 과일 향과 꽃 향, 상큼한 신맛과 부드러운 바디감으로, 뛰어난 맛과 향을 선사한다.



하와이 지상 낙원에서 자라난 완벽한 스페셜티 커피

느긋하게 물결치는 와이키키 해변과 흥겨운 훌라춤이 떠올러지는 하와이.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을 닮은 하와이안 코나 커피는 차별화된 맛과 향으로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예멘 모카 마타리와 함께 세계 3대 커피로 꼽힌다. 특히 코나 커피 최고 등급인 ‘엑스트라 팬시’는 고급스러운 신맛과 단맛, 부드러운 바디감에 깊고 풍부한 아로마까지 두루 갖춰 명품 원두로 평가받는다. 코나 커피가 생산되는 하와이 ‘코나’ 지역은 적당한 강수량과 충분한 일조량, 물 빠짐이 좋고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 등 커피 재배에 최적화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생산되기에 희소성이 높고, 빨갛게 잘 익은 열매만을 골라 일일이 손으로 채취하다 보니 가격이 비싼 편이다. 전체 원두 중 코나 원두가 10%만 포함되도 코나 커피로 표기할 수 있으니, 코나 커피 구입 시 함량 확인은 필수!



유럽의 커피문화 들여다보기

스웨덴에서 커피는 곧 문화다. ‘피카(Fika)’로 대표되는 스웨덴 커피타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뤄지며, 직장에서도 대부분 피카를 보장받는다.

이탈리아인들은 ‘커피’ 하면 에스프레소를 떠올릴 만큼 진한 커피를 즐기며, 카페라떼는 아침식사 대신, 카푸치노는 퇴근길 저녁시간에 주로 마신다.

핀란드 세계 최대 커피 소비국은 의외의 핀란드. 길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커피는 일상이 됐다. 만약 핀란드 가정에서 커피와 빵을 내놓는다면 극진한 대우를 받은 것이니 기뻐해도 좋다.



인도네시아 ‘커피의 섬’이 품은 개성 넘치는 맛과 향

커피는 적도를 중심으로 연평균 강수량 1500mm 이상인 남북위 25도 이내 지역에서만 생산되며, 이를 ‘커피 벨트’라 일컫는다. 인도네시아를 이루는 약 1만7천 여 개의 섬 대부분이 이 커피 벨트 중심부에 자리한데다 무기질이 풍부한 화산지형과 연중 일정한 기후는 완벽한 조건을 이루며 인도네시아를 ‘커피의 섬’으로 등극케 했다. 대표 산지는 수마트라, 자바, 술라웨시. 이중 수마트라 커피는 진한 풍미와 긴 여운, 흠냄새와 향신료 향이 매력적이며, 자바 커피는 예멘의 모카와 블렌딩한 ‘모카자바’로 유명한 바로 그 커피다. 인도네시아 커피를 이야기할 때 빼놓으면 섭섭한 것이 야생 사향 고양이 먹고 배설한 커피열매를 모아 가공한 코피루왁, 캐러멜과 초콜릿 향을 품으며 쓴맛과 신맛이 조화를 이루는 이 커피는 소량만 생산되는 희소성 탓에 비싼 값을 치러야 맛볼 수 있는 귀한 커피다.

단 한 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다. 설레는 순간, 행복한 순간, 감동의 순간. 언제라도 다시 꺼내보고 싶은 나만의 여행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는 도구들을 모았다.

에디터 김홍주 / 일러스트 카롤(CaCol)
 자료협조 그라폰 파버카스텔, 라이카, 몰스킨, 몽블랑, 벨루티, 엔아더스토리즈, 워터맨, 파카, 후지필름, S.T.듀폰

WAYS TO CAPTURE YOUR TRAVEL MOMORIES

① 2430만 화소에 X-트랜스 CMOS III 센서와 X-프로세서 프로 고속 화상처리 엔진을 탑재한 프리미엄 콤팩트 디지털카메라 X100F, 후지필름 ② 고급스러운 블랙과 골드 컬러가 어우러진 심플한 사각형 디자인에 18K 골드 닙으로 마무리한 악셀션 N&D 블랙 GT 만년필, 워터맨 ③ 오크우드 소재의 세일링 보트 디자인 위로 S.T.듀폰의 철학이 담긴 펜과 라이터가 세트 구성된 세븐 시즈 리미티드 에디션, S.T.듀폰 ④ 베네치아 스크리토 송아지 가죽 소재에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 내부 포켓 구성으로 휴대폰과 카드 수납 등이 용이한 니노 PM 리더 서류 홀더, 벨루티 ⑤ 1950년대 관능적인 매력으로 사랑받은 배우 마릴린 먼로의 페라가모 하이힐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뮤즈 마릴린 먼로 스페셜 에디션. 우아한 화이트 컬러, 그녀의 초상이 새겨진 14K 골드 닙, 레드 골드 클립에 장식된 진주까지 특별하다. 몽블랑



①



⑥



⑦



⑧



⑨



②



③



④



⑤



⑥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장 미셸 바스키아의 대표작 '텍시도'를 모티브로 제작한 리미티드 에디션 노트. 블랙 컬러에 상징적인 단어와 기호가 채워졌다. 몰스킨 ⑦ 캐주얼한 의상에도 포멀한 의상에도 잘 어울리는 컴플리스 옛지 라지 리더 메신저 백, 힝색 스타일로 드로잉 여행자에게 안성맞춤이다. 벨루티 ⑧ 5.3x6cm 컴팩트한 사이즈로 가벼운 필기도구를 넣기 편리한 데생 인그레 이브드 베네치아 송아지 가죽 파우치, 벨루티 ⑨ 블랙과 실버의 클래식한 디자인, 1700만 화소의 4/3 (포서드) 센서,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USB-C 충전 기능을 갖춘 컴팩트 카메라 라이카 D-Lux 7, 라이카 ⑩ 브라운과 핑크 골드 컬러가 어우러진 부드러운 곡선형 보디에 18K 골드 닙을 장착한 프리미어 소프트 브라운 GT 만년필, 파카



⑩

① 최고급 사피아노 가죽 소재, 에메랄드 스톤의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 투명한 몽블랑 엠블럼 장식, 최고급 종이를 사용한 에메랄드 그린 컬러 노트, **몽블랑** ② 크고 작은 메모지들을 모아 깔끔하게 정리하는 황금빛갈 메탈 집게, **앤더스토리즈** ③ 여행 중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면? 언제든지 꺼내 추억을 나누기 좋은 카드 세트와 카본스틸 소재로 부드러운 커팅을 보장하는 크래디언트 스텝크 가위, **앤더스토리즈** ④ 부드럽고 두꺼운 4B심의 샤프너와 지우개가 내장되어 야외에서도 쉽게 메모를 남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퍼펙트 펜슬 컬렉션의 매그네틱 사이즈 펜슬, **그라폰 파버카스텔** ⑤ 고성능 플래시 탑재로 노출 밸런스를 맞추고, 매크로, 풍경, 키즈, 파티 및 밝기 조절도 가능한 아날로그 감성의 즉석카메라 인스탁스 미니 90 네오 클래식, **후지필름**



그림은 모두 드로잉 작가 카콜(CaCol)이 약 80일간 포르투갈을 여행하며 그린 일상의 기록입니다. 여행도서 <드로잉 인 포르투갈>에서 더 많은 글과 그림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19 글로벌고객만족역량 조사
항공여행서비스부문 1위 대한항공

AMSTERDAM

어디로든 데려다줄 길이 흐르는 곳, 암스테르담을 만나다

대한항공 인천 - 암스테르담 주 6회 운항

유럽 여행의 중심, 암스테르담으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www.koreanair.com



평범함을 거부하는
이색 박물관들

MUSEUMS OUT OF THE ORDINARY

누군가에게는 즐겁지만 누군가에게는 따분한 장소 '박물관'.
하지만 이들 박물관을 거부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듯!
재미는 물론 감동까지 고루 갖춘 독특한 콘셉트의 박물관들.

에디터 임지영



**와인박물관,
라시테뒤뱅**

와인에는 매료되지 않았더라도 라 시테 뒤 뱅 (Cité du Vin)에는 매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프랑스 보르도에 위치한 라 시테 뒤 뱅은 와인을 테마로 한 전시회, 쇼, 영화 상영 및 학술 세미나를 총 망라한 와인 박물관이다. 이곳에 입성한 사람들은 와인 보틀의 우아한 곡선을 형상화한 외관에 한 번 반하고, 웅장한 규모의 내부에 두 번 반하고 만다. 파라오가 마시던 와인에서부터 전쟁을 유발한 와인까지 압도적인 스케일의 와인 컬렉션을 둘러보다보면 어째서 와인이 '신의 물방울'이라 불리며 축제나 귀한 만찬에 쓰였는지,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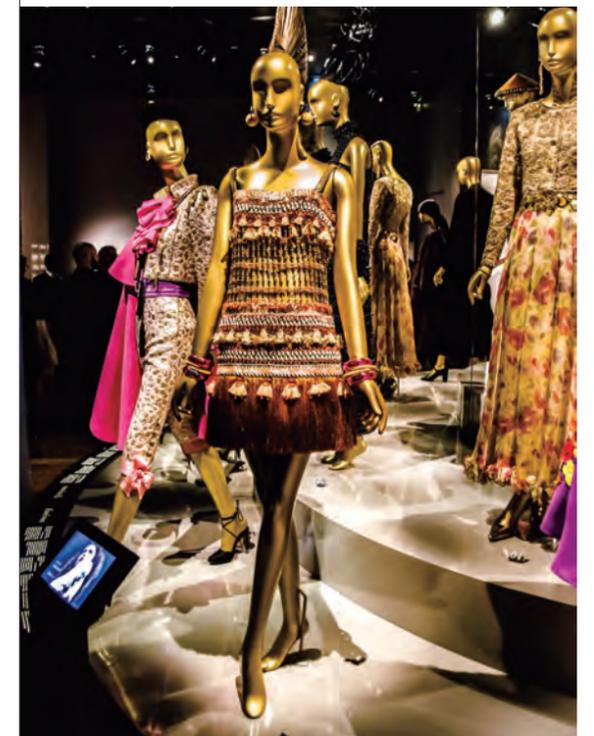
La Cite du Vin
Esplanade de Pontac, 134 Quai de Bacalan,
Bordeaux, France



**이브생로랑박물관,
위제 이브생로랑**

디자이너 이브생로랑에게 모로코 마라케시는 영원한 영감의 원천이었다. 세기를 풍미한 디자이너 이브생로랑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일생의 파트너였던 피에르 베제(Pierre Bergé)가 고인이 된 디자이너를 기리기 위해 2017년 모로코 마라케시에 오픈한 박물관. 평소 디자이너가 즐겨 쓰던 색채와 패턴이 박물관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이브생로랑의 의상을 전시한 전시 홀, 자크 마요렐(Jacques Majorelle)에 헌사된 공간, 13석 규모의 소강당과 서점, 카페 겸 레스토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큐브와 커브, 벽돌 레이어로 완성된 테라코타 톤의 외관에서부터 디자이너의 아이덴티티가 묻어난다.

Musée Yves Saint Laurent
Rue Yves St Laurent,
Marrakech, Morocco



**내일박물관,
뮤제우 도 아마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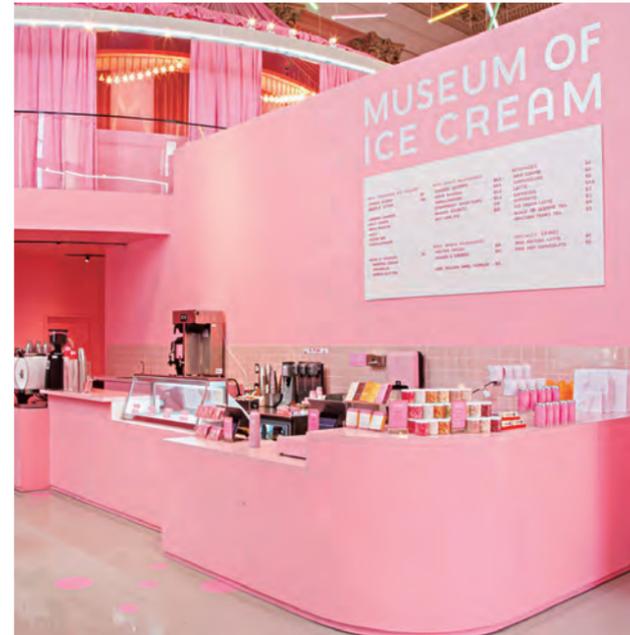
우리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증만큼 커져 가는 건 호기심이다. 리우 데 자네이로에 새로 생긴 랜드마크 '뮤제우 도 아마냐(Museu do Amanhã)'는 오지 않은 미래에 달아보는 커다란 의문부호,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이다. 비록 이름은 '내일'이지만, 지속 가능성과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인류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직면하게 될 기회와 도전을 탐구하는 과학박물관이다. 떠오르는 스페인의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Santiago Calatrava)의 설계로 피어 마우아(Pier Maua)의 해안가에 지어져 볼거리 많은 리우 데 자네이로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고 있다.



Museu do Amanhã
Praça Mauá, 1 - Centro,
Rio de Janeiro, Brazil

**아이스크림박물관,
뮤지엄 오브 아이스크림**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이다. 박물관계의 '월드 디즈니'라고나 할까? 뮤지엄 오브 아이스크림은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사랑스러운 박물관 겸 카페다. 박물관 내부에는 자이언트 쿠키 등 <찰리의 초콜릿 공장>의 실사판이라 할 만한 디저트들이 가득하다. 아이스크림과 디저트들은 단순한 관람 뿐 아니라 '맛볼' 수도 있어 달콤한 일석이조를 약속한다. 디저트에서 영감을 얻은 펜시한 디자인의 어패럴, 액세서리류를 판매하는 숍과 디저트 보물창고 '카페 1905C' 등 즐거움을 주는 공간들은 빈약한 어른들의 상상력을 채워 주고도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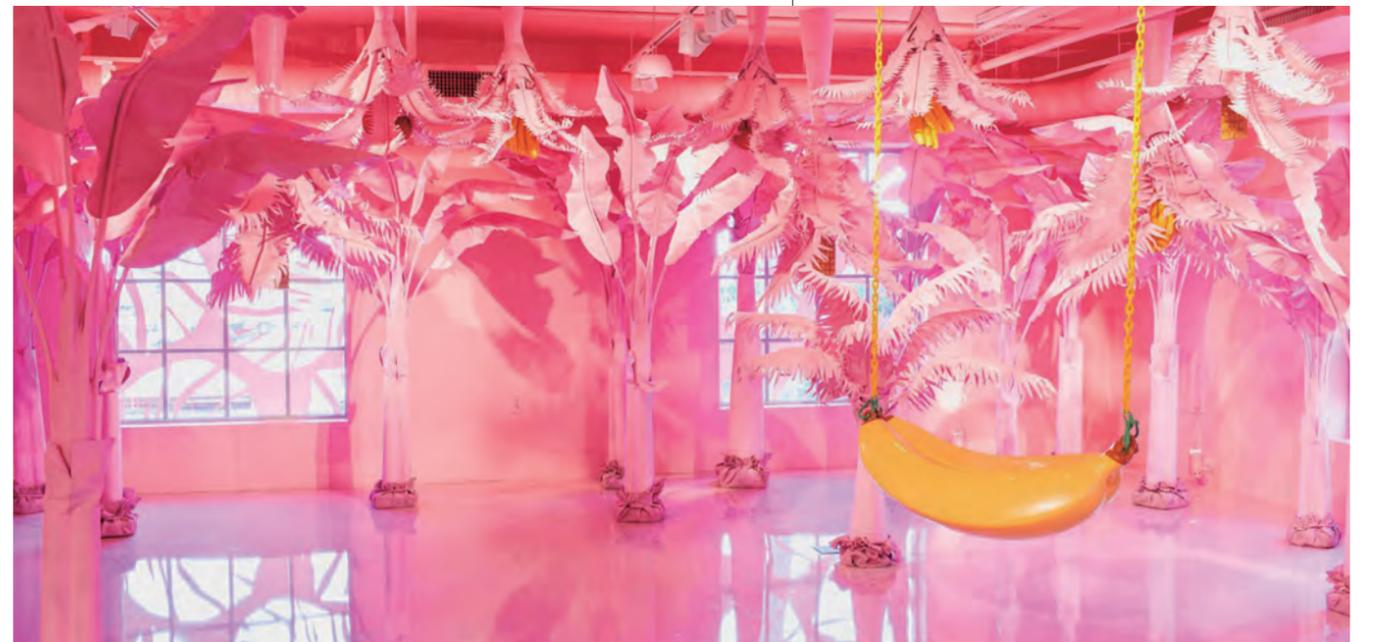


Museum of Ice Cream
1 Grant Ave, San Francisco,
CA USA

**실연박물관,
뮤지엄 오브 브로큰 릴레이션십**

자그레브 구도심 바로크 양식의 건물에 들어선 박물관. 로맨틱한 외관과 달리, 내부는 통렬한 아픔으로 가득하다. 사랑했지만 헤어진, 혹은 일생의 인연이라 믿었던 소중한 사람을 잃은 옛 연인들의 개인적인 소장품이 사연들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눈물에 젖은 편지, 회중시계, 낡은 신발, 입지 못한 웨딩드레스 등의 전시품들이 옛 추억에 젖은 방문자들의 눈시울을 적신다. 박물관 아래층의 기념품 가게에서는 '나쁜 기억 지우개'도 판매한다. 진짜로 지울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니겠지만, 지우개를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Museum of Broken Relationships
Ćirilometodska ul. 2, 10000,
Zagreb, Croatia



프로방스와 라벤더로드

풍경에 취하고 향기에 취하는 들녘

프로방스에는 1년 중 300일 햇살이 머문다.
 워든 풍요롭게 잘 자라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꽃과 허브다.
 프로방스가 오늘날 허브의 대명사가 된 이유다.

에디터 한유리



- 향수 원액
추출을 위해
바구니에 채집된 꽃



- 향수명가
프라고나르에서
프로방스 허브로
만든 제품

‘나는 중얼거렸다. 저 수많은 별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었노라고. 그리고 그 별은 내 어깨 위에 내려앉아 고이 잠들어 있노라고.’ 별빛만이 비추는 프로방스 뤼브롱 산의 신비로움에 반한 알퐁스 도데는 빛바랜 노트에 그렇게 적었다. 모름지기 가을은 깊고 그윽한 빛과 향기로 기억되는 계절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프로방스는 라벤더 시즌이 아니라 가을에 가장 향기롭게 무르익는 여행지다. 남프랑스 프로방스는 전 세계 라벤더의 90%가 생산되는 최대 허브산지다. 낭만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수도원과 라벤더 밭이 웅단처럼 펼쳐진 평원, 영화 <지붕 위의 기병>의 무대였던 마노스크와 영화 <어느 멋진 순간>의 배경이 되었던 바위 산 위의 성채까지 이곳에는 수많은 영화의 무대가 되었던 로케이션들이 즐비하다. 프랑스 유명 퍼퓸 회사들이 향수 원액을 공급하는 '몰리나르'나 '갈리마르', '프라고나르'와 같은 회사들이 모여 있으면서 영화 <향수>의 배경이 되었던 곳도 프로방스다. 발랑솔에서 시작해 그림같이 아름다운 무스피에 생트 마히 마을과

생트 크화 호수, 베흐동 협곡을 통과하는 일명 '라벤더 로드'는, 여행자들 사이에선 스페인의 '엘 까미노'만큼이나 유명한 길이다. 라벤더 로드는 세상의 모든 향기가 시작되는 길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향수와 명화, 소설을 탄생시킨 들녘, 성당, 골목은 어느 것 하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소중한 마일스톤이자 아이콘이다.

프로방스 곳곳에서 매주 열리는 시장은 지역 특산품과 현지인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다. 플라타너스가 드리운 광장과 그 주변에 늘어선 17~18세기 저택, 카페 테라스에 여유롭게 앉아있는 현지인은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한다. 쌀자루 같은 크기의 자루에 말린 허브를 60~80가지 정도 가지고 나오는 상인도 있다. 신선한 야채와 허브, 양질의 올리브 오일만 있다면 남프랑스 전통요리인 라따뚜이(ratatouille)를 만들 수 있다. 호박, 양파, 가지, 토마토, 붉은 피망, 마늘, 약간의 프로방스 허브, 로즈마리, 월계수, 소금, 후추, 올리브 오일만 있으면 된다. 허브를 약간 넣었을 뿐인데, 평범한 야채 요리가 근사한 프랑스 가정식 요리로 변신한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바닥이 두꺼운 냄비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마늘을 볶아 향을 낸 다음 야채를 넣고, 로즈마리, 월계수, 프로방스 허브를 1~2 큰 술 넣어 문근히 끓인 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면 된다. 빵 한 조각이나 찢 감자를 곁들이면 한 끼 식사로 손색없다. 비록 라벤더는 지고 없지만 알싸한 향기가 넘실대는 라벤더 지평선에서 올 가을 영혼을 적셔줄 라따뚜이를 맛보며 내 인생의 아름다운 한 장면을 남겨 보는 건 어떨까.



- 허브를 곁들인
남프랑스 전통요리
라따뚜이

KALPAK COLLECTION

2019 AUTUMN

여행, 삶을 특별하게 하는 즐거운 마법

동화작가 안데르센은
‘여행은 정신을 다시 젊어지게 하는 마법의 샘’이라 말했다.
일상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펼쳐지는 이 색다른 경험은
특별하면 특별할수록 더욱 강력한 마법을 발휘한다.

남다른 자유여행의 시작

삶이 다르면 여행도 달라야 합니다. VIP 고객들만을 위한 KALPAK의 맞춤형 여행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 문의 02. 726. 5800
-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7, 대한항공빌딩 6층 KALPAK팀

KALPAK 맞춤형 여행 견적 및 예약 절차

1. 여행 문의: 선호하는 여행지 혹은 여행상품에 관한 출발일, 여행기간, 항공 및 호텔 등급 등 일반적인 여행 관련 정보를 들어보고 상담한다.
2. 여행 일정 및 견적: 여행 일정 및 견적은 상담 후 3일 이내에 안내 받을 수 있다.
3. 견적서 등 상품 콘텐츠 확인 후 여행 진행 여부 확정
4. 비용 결제 및 여권 사본 제출
5. 여행 안내문 발송: 여행 관련 항공, 호텔, 차량 및 가이드 등 주요 진행사항 확정 후 안내문과 자료 등을 받아볼 수 있다.
6. 해피콜 진행: 여행 종료 후 3일 이내에 여행 관련 만족도를 묻는 해피콜이 시행된다.

KALPAK 멤버십 통합

2019년 2월 1일부터 KALPAK 멤버십이 한진관광 멤버십 내 <KALPAK 회원> 자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한진관광 멤버십 <KALPAK 회원> 전환 방법
기존 KALPAK 멤버십으로 로그인 ▶ 멤버십 전환 신청 ▶ 한진관광 멤버십 <KALPAK 회원> 전환
- 한진관광 멤버십(KALPAK 회원) 가입 자격
최근 3년 내 KALPAK 상품 1회 이상 이용 고객
KALPAK 신규예약 확정 고객(요금 완납상태)
대한항공 밀리언 마일러(MM) 또는 모닝캄 프리미엄(MP) 회원
- KALPAK 멤버십 혜택
 - 구매한 KALPAK 상품가의 2% 포인트 적립 및 사용
 - 연간 이용 실적에 따른 추가 혜택 제공
 - 맞춤형 여행 컨설팅 제공 / 멤버십 매거진 KALPAK CLASS 정기 우송
 - 이용 금액에 따라 제주 생수 무료 배송 / 항공권 구매 시 수수료 면제
 - KALPAK 여행상품 이용시 공항 체크인 우대 서비스, 사진 좌석배정, 수하물 우선처리 서비스 등 제공

자연 만끽 여행 (괌, 오세아니아)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는 휴양 여행 (날짜에 따라 상품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라 스위트룸]
괌 두짓타니(Dusit Thani) 자유 4일

괌 지역 내 최고의 리조트로, 전 객실 중 단 5실밖에 없는 스위트룸은 투몬 비치의 황홀한 파노라마 풍경을 선사하는 오션프론트뷰로 휴식에 특별함을 더한다. 투명한 해변, 푸르른 열대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어 프라이빗한 휴양을 즐기기에 최적화된 곳이다.

출발 매일
일정 괌(3)
가격 ₩4,523,200~ / 문의 02-726-5708



[2인 출발]
호주 시드니, 골드코스트 6일

도시적 면모를 지닌 시드니와 액티비티 천국 골드코스트의 두 가지 매력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패키지. 와이너리 방문과 골드코스트 헬기 투어, 블루마운틴 관광은 여정을 풍성하게 하고, 골드코스트 베르사체 호텔과 시드니 파크 하얏트에서의 침은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한다.

출발 매일
일정 기내(1) - 브리즈번 - 골드코스트(2) - 시드니(2)
가격 ₩7,731,200~ / 문의 02-726-5706

유유 자적 여행 (동남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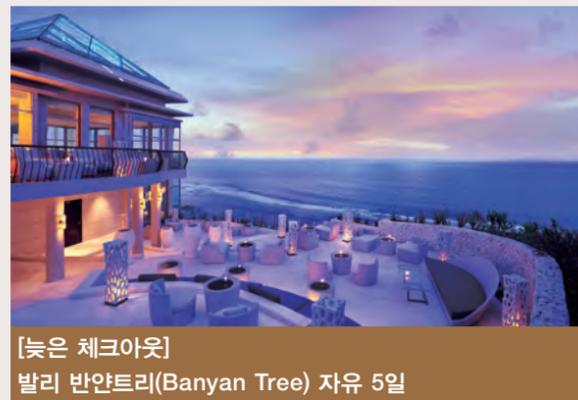
느긋한 심을 선사하는 힐링 여행 (날짜에 따라 상품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탑승/18시 늦은 체크인]
방콕의 새로운 랜드마크,
로즈우드 호텔 자유 5일**

전 세계에 총 27개의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럭셔리 호텔 체인 로즈우드(Rosewood)가 태국의 수도 방콕 중심지에 문을 연 28번째 신규 호텔이다. 비즈니스 중심지, 고급 쇼핑 지역과 가까워 차별화된 편안함과 편리함을 선사하며, 객실에서 방콕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는 것도 특징.

출발 매일
일정 방콕(3) - 기내(1)
가격 ₩2,393,200~
문의 02-726-5705, 5706, 5707, 5714



**[늦은 체크인]
발리 반얀트리(Banyan Tree) 자유 5일**

인도네시아 발리의 남쪽 끝 한적한 절벽 위에 자리한 낙원, 반얀 트리 웅가산. 거대한 인도양을 바라보고 있어 끝없는 수평선을 조망하기에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복잡한 일상의 피로를 한 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는 곳 '신의 섬' 발리에서 즐기는 특별한 휴양.

출발 매일
일정 발리(3) - 기내(1)
가격 ₩2,600,000~ / **문의** 02-726-5705, 5706, 5707, 5714



**[디너 1회 제공]
다낭 하얏트리젠시 자유 5일**

세계 7대 해변으로 꼽히는 미케 해변에 자리한 다낭 하얏트 리젠시(Hyatt Regency)는 다낭 시내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어 특별함을 더한다. 다낭 근교 및 골프장으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출발 매일
일정 다낭(3) - 기내(1)
가격 ₩1,201,200~ / **문의** 02-726-5705, 5706, 5707, 5714

고풍 낭만 여행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색 힐링 여행 (날짜에 따라 상품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하이 카펠라(Capella) 자유 3일

중국 전통 주거 문화인 '스쿠먼' 문화 보호구역에 2017년 문을 연 호텔로, 상하이의 황금 시대였던 1930년대 모습을 현대적 감각과 접목해 재탄생시킨 곳이다. 상하이 유일의 빌라형 호텔로, 단 55개의 객실만 운영된다.

*** 제주푸어워터 1인당 1박스 및 얼리 체크인(오후 1시) 제공**
출발 매일 / 일정 상하이(4)
가격 ₩1,271,600~ / **문의** 02-726-5704, 5706



니가타 가호 료칸 자유 3일

초키오카 온천에 위치한 전통 일본식 온천호텔로 지역 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6천 평 규모의 아름다운 일본식 정원이 인상적이다. 니가타는 쌀이 맛있기로 유명해 사케와 양조장 또한 유명하다. 초키오카 온천은 황화수소 함유량이 높아 피부에 좋다.

*** 인천공항 차상위 카운터 체크인-인 우대서비스 제공**
출발 화. 목 / 일정 인천-니가타(2)-인천
가격 ₩1,321,600~ / **문의** 02-726-5708



카이 안전 자유 3일

도쿄 근교에 자리한 바닷가 마을에 숙소가 있어 한적하고 고즈넉한 휴식이 가능하다. 전 객실 오션뷰로, 로비 및 객실 등은 고풍스러운 마린스타일로 장식돼 있는 것이 특징.

*** 도쿄역-아타미역 간 왕복 열차(일등석) 티켓 포함**
출발 매일 / 일정 김포 - 하네다 - 이토(2) - 하네다 - 김포
가격 ₩1,771,600~ / **문의** 02-726-5708



**[기내면세상품권]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 싱가포르 카펠라 (Capella) 자유 5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자리한 카펠라 호텔은 2018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역사적 장소로도 화제를 모은 곳. 눈부신 바다가 바라다보이고 열대우림으로 둘러싸인 고풍스러우면서도 현대적인 카펠라 호텔에서 평화로운 휴식을 만끽해보자.

출발 매일 / 일정 싱가포르(3) - 기내(1)
가격 ₩1,723,200~ / **문의** 02-726-5705, 5706, 5707, 5714

활력 충전 여행 (중남미, 하와이, 미주)

웅장한 자연 속에서의 색다른 체험 여행 (날짜에 따라 상품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탑승] 남미 핵심 일주 4개국 13일

브라질, 아르헨티아, 칠레, 페루 등 중남미 핵심 지역을 방문하며 역사를 담은 유적에서부터 장엄한 자연에 이르기까지 두루 경험할 수 있는 여정.

* 전 일정 비즈니스석 탑승

출발 1월 20일 /

일정 프랑크푸르트(경유) - 상파울로(경유) - 리우데자네이루(1) - 이과수(2) - 부에노스아이레스(1) - 산티아고(1) - 리마(1) - 우루밤바(2) - 리마(1) - 로스앤젤레스(경유)

가격 ₩24,500,000~ / 문의 02-726-5715



오아후 포시즌스 자유 6일

골프와 쇼핑, 해양 액티비티까지 모든 목적에 부합하는 최고의 여행지 하와이. 2016년 문을 연 오아후 포시즌스는 현재 오아후 섬 최고의 리조트로 자리매김했다.

* 대한항공 프레스티지석 탑승으로 구성, Pay 2, Stay 4 제공(1인 약 70만 원 상당)

출발 매일 / 일정 오아후(4) - 기내(1)

가격 ₩4,619,600~ / 문의 02-726-5715



유타 아만기리 자유 7일

사막 한 가운데 자리한 최고급 럭셔리 리조트에서의 이색적인 휴식을 꿈꾼다면 제격이다. 세계 최고의 럭셔리 리조트인 Aman 리조트에서 투숙하면서 캐니언 포인트의 웅장함과 장대함을 느낄 수 있다.

출발 매주 월요일

일정 라스베이거스(1) - 캐니언 포인트(아만기리)(3) - 기내(2)

가격 ₩9,700,000~

문의 02-726-5715



마우이 페어몬트(Fairmont) 5일

2015년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재탄생한 마우이 페어몬트는 전 객실이 스위트로 운영되며, 객실 내에서 바라보는 오션 뷰가 환상적이다. 총 3개의 수영장 및 1개 스파를 보유하고 있으며, 리조트 내 휴식이 가능하다.

출발 매일 / 일정 오아후(경유) - 마우이(3) - 오아후(경유) - 기내(1)

가격 ₩3,131,200~ / 문의 02-726-5715

이색 체험 여행 (유럽, 중동)

다양하게 공존하는 문화와 즐길 거리를 누리는 여행 (날짜에 따라 상품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인 출발]
동유럽 3개국 9일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대한항공 직항편을 이용해 낭만의 도시 프라하, 모차르트의 고향 잘츠부르크, 음악의 도시 비엔나,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세체니 다리와 야경 유람선 승선까지 동유럽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여정.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인 Four Seasons 및 The Leading Hotels of the World 소속의 럭셔리 호텔을 사용하며, 모차르트 콘서트 (VIP석) 관람도 포함되어 있다.

출발 월, 수, 토

일정 인천 - 프라하(2) - 체스키크룸로프/ 잘츠부르크(2) - 할슈타트/비엔나(2) - 부다페스트(1) - 프라하(경유) - 기내(1) - 인천

가격 ₩14,076,800~

문의 02-726-5704, 5709

[4인 출발]
아시아와 유럽이 공존하는 나라,
터키 완전일주 9일

종교 박해의 피신처로 알려진 카파도키아의 동굴 교회, 로마 시대 온천 휴양지인 '파묵칼레', 에게해가 마주보이는 휴양지 '안탈리아' 등 터키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일정. 대한항공 직항편을 이용하며,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연합체인 Kempinski 및 지역 내 최고급 호텔을 사용한다. 카파도키아를 굽어볼 수 있는 열기구 탑승 체험도 포함되어 있다.

출발 매주 일요일

일정 인천 - 이스탄불(2) - 카파도키아(2) - 안탈리아(2) - 파묵칼레(1) - 에페소/ 이즈미르/이스탄불(경유) - 기내(1) - 인천

가격 ₩11,969,600~

문의 02-726-5704, 5709



KALPAK CASUAL

특별하고 실속 있는 나만의 여행

최고급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및 일정으로 구성된 기존의 KALPAK 상품과 달리,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운영상의 사유로 인해 차선의 콘텐츠로 구성된 상품입니다.
KALPAK Casual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목적지와 숨겨진 여행지를 발굴해,
색다른 일정으로 여행이 주는 낯선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나를 위한 작은 사치, 작지만 서비스를 강화한 스펀 럭셔리 여정으로 특별한 여행을 경험해보세요.
가성비를 고려한 다양한 체험을 담은 여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인 출발] 프랑스의 와인과 루아르 고성 9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편안하게 샴페인의 본고장 랭스 지역부터 세계 최고의 와인 생산지 보르고뉴 지방, '프랑스의 정원'으로 형용되는 루아르 고성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이다. 프랑스의 대표 유산인 와인 과 루아르 지역의 아름다운 고성으로 떠나는 낭만 여행.

* 세계적인 럭셔리 부티크 호텔 연합체인 Relais & Chateaux와 SLH의 호텔 이용

* Taittinger / Champagn Mercier 등 세계 럭셔리 와이너리 투어 및 식사

* Bateaux Parisien 또는 Bustronome 탑승하여 파리를 둘러보며 석식 제공

출발 매주 금요일

일정 베르사유/파리(3) - 에페르네/랭스(1) - 본느/디종(1) - 루아르(2) - 기내(1) - 인천

가격 ₩9,800,000~

문의 02-726-5704, 5709



[8인 출발] 이야기와 전설이 있는 영국 9일

영국의 전설적인 작가 셰익스피어를 비롯해 18세기 대문호 윌리엄 워즈워드 등 문학의 거장들이 걸었던 사색의 여로를 따라가는 여정. 대한항공 직항편과 세계적인 럭셔리 부티크 호텔 연합체인 Relais & Chateaux와 SLH의 호텔을 이용하는 상품이다.

출발 매주 금요일

일정 런던(2) - 스톤헨지 - 버스(1) - 스트랫퍼드 어폰 에이번 - 리블밸리(1) - 하워스 - 그레이스미어/윈드미어(1) - 로슬린 - 에든버러(2) - 런던 - 기내(1)

가격 ₩9,576,800~ / 문의 02-726-5704, 5709



오아후 트림프 자유 6일

걸어서 10분이면 와이키키 비치에 닿을 수 있는 위치의 콘도 형식 호텔로, 전 객실 키친을 구비하고 있으며 KALPAK 고객에게는 스위트 객실을 제공한다. 대한항공 프레ستی시석 탑승 시 1인 약 20만 원 상당의 호텔 석식이 1회 제공된다.

출발 매일

일정 오아후(4) - 기내(1)

가격 ₩3,800,600~ / 문의 02-726-5715



그랜드하얏트 타이베이(Grand Hyatt) 자유 3일

타이베이 랜드마크 101타워와 연결된 곳으로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는 호텔. KALPAK에서는 1인 약 20만 원 상당의 스위트룸 무료 룸 업그레이드를 제공한다. 또한 항공 클래스에 따라 기내 면세 상품권 5만 원 권 1~2매까지 혜택에 혜택을 더한 상품이다.

출발 매일

일정 타이베이(2)

가격 ₩950,000~ / 문의 02-726-5704, 5706



2019 글로벌고객만족역량 조사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부문 1위 대한항공



BOSTON

가장 미국다운 미국, 보스턴을 만나다

대한항공 미국 보스턴 주 5회 운항
델타항공과 함께 미주 290여개 도시로 당신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www.koreanair.com



미국의 초대 대통령
GEORGE WASHINGTON



2019 글로벌고객만족역량 조사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부문 1위 대한항공



DELHI

형형색색 찬란한 문명의 나라, 인도를 만나다

대한항공 델리 노선 매일 운항
인도의 중심, 델리로 편안하게 모십니다



www.koreanair.com



자이푸르의 하와마할
Hawa Mahal

제주의 물 중에서도
귀한 물을 찾아 드시는 분들께만 찾아갑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귀한 물_한진제주퓨어워터



주문

1544-4060
jejuwater.com
m.jejuwater.com

한정된 양만 생산하는 제주퓨어워터 -
누구나 만나는 흔한 물이 아닙니다.
인터넷과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집 앞까지 특별하게 배송해드립니다

한진
제주퓨어워터



쇼핑, 하늘 위에서 특별해지다 대한항공 기내 면세쇼핑

하늘 위 기내에서 여유롭고 편안하게 누리는
품격 높은 브랜드 쇼핑 - 대한항공 기내 면세쇼핑
엄선된 인기 럭셔리 브랜드와 시즌 별 다양한 구성으로
면세 쇼핑의 즐거움이 더 특별해집니다

Heart to Heart 서비스

해외 여행을 하시는 분이 계실 때, 당신이 마련한 선물과 함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기내에서 전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cyberskyshop.koreanair.com에서 확인하세요)



기내 면세품 사전 주문 : 080-656-4545 / cyberskyshop.koreanair.com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SKYTEAM